



당신이 잘 모르는 아주 고무적인 일

신발로 시작해 자동차 부품, 포장용 필름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
 화승그룹의 아반은 유연함으로 갈고 닦은 참으로 고무적인 시간이고, 역시였습니다.
 신발을 넘어, 화승을 넘어 고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화승 -
 세상은 유연한 사람들이 만들고, 화승은 행복한 당신을 만듭니다.

Flexible Life 화승그룹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건(태칭)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칭)유한공사(HSR) 장천
 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능재료(태칭)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미국 - 화승앨라배마(HSAA),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 말레이시아 - 화승말레이시아(HSLS) 터키 - 화승타키(HSTR) 베트남 - 화승베-비(VINA), 화승똥따우(HVT),
 화승베트남케이엠(HVC),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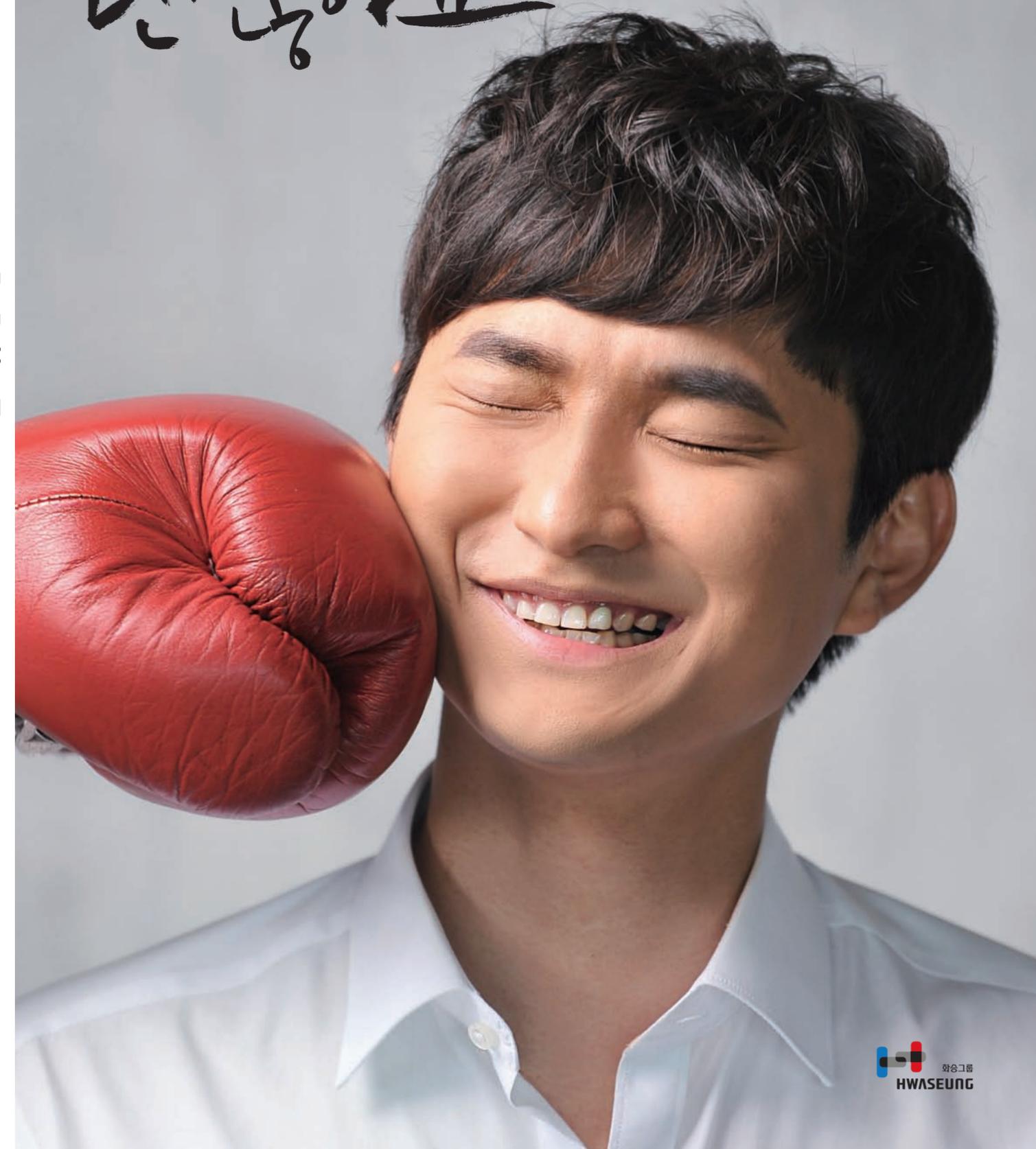


가을호

DBT Magazine
 2014 Autumn 화승그룹 | Vol.36 가을호

괜찮아요

Do Better Tomorrow



화승그룹





화승인더스트리 영업1팀
정기명 사우

위로의 문장들

Writer 화승 사람들

화승 사람들에게 삶이 굴곡을 그릴 때마다 방패 혹은 은신처가 되어 준 문장을 물었습니다.
행여나 어깨가 축 처져있을지도 모를 당신에게도 이 문장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가끔은 힘내라는 말보다 이런 말이 더 위로된다.

마음껏 힘들어하고, 애써 힘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홀가분해진다.

2

動者必勝(동자필승)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못한다.

3

내 비장의 무기는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4

學而時習之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또 배우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

일이 힘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5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나짐 히크메트

6

오늘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일은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7

니 마음 다 안다.

직장상사

8

사랑스러운 내 딸

내 삶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는 부모님

9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라.

10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마이크 디트카



CONTENTS

2014 Autumn Vol. 36

Open day

04 위로의 문장들

08 Open Your Life // 관차니즘을 위한 라이프 레시피

—

Are you OK? 당신의 안부를 묻다

12 Out side Column // '남' 말고 '나'만 위로하기

14 Interview 1 // 홀트일산복지타운 조병국 원장

18 Interview 2 // 화승네트웍스 염진혁 사원의 타향살이 이야기

22 화승의 속살 // 용감무식 두 남자의 중국 화승 탐방기

32 Photo Essay // 화승인들의 아름다운 손 화보

38 Story Zip 1 // 허기진 내 영혼을 채워주는 소울 푸드

42 Photo Space // 소소한 힐링, 비오는 부산

—

I'm not OK. 속마음을 훑쳐보다

48 Inside Column // '예니오'가 아닌 '아니오'를 말해보기

50 Interview 3 // <막돼먹은 영애씨> 배우 김현숙

54 화승 이 만남 // 화승 임직원 범어사 템플스테이 체험

58 Story Zip 2 // "관찰야" 뒤의 안 관찰은 진실

Do Better Tomorrow

www.hwaseunggroup.com

62 Real Talk // 세련되고 진솔하게 건네는 거절의 한마디

66 Photo Essay // 어느 날, 관찰은 것들의 속마음

72 씬 프로젝트 // 화승인더스트리 싱글남 연애 프로젝트

76 번지점프를 하다 // '안 관찰은' 화승인들의 번지점프 도전기

—

Everything is alright.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다

82 CEO Memories // 열정과 비전 가득 중국 법인 CEO

84 Interview 4 // 부산 인디서점 프롬더북스

88 Interview 5 // 화승R&A 킥복싱녀 김지은 사원

92 내 인생의 BGM // 우리 함께 들을까?

98 화승 닥터클리닉 // 화승T&C 이보영 사원 라식수술 체험

102 워드 프로젝트 // ❶ 2014 WATA 하계 캠프 ❷ 나는카페 조동욱 이사장 인터뷰

—

Hawseung Reports

110 화승에 이런 일이

112 그룹 뉴스

114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



- 관차니즘을 위한 라이프 레시피 -
**욕심을 반으로,
 진심을 두 배로**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는 묻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괜찮은 거야? 진짜 괜찮은 거야?
 무엇이, 무엇이 괜찮을까요?
 괜찮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각자의 생각이 답이 되는
 관참음. 관차니즘.
 모두가 관참을거라 하지만
 정작 자신은 불행하고,
 모두가 힘들거라 걱정하지만
 결국 자신은 정말 관참은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관참음. 관차니즘.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없는 욕심.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무엇이 괜찮을까요?
 괜찮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욕심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체중 다이어트 말고,
 오늘부터 욕심 다이어트 어떠세요?
 욕심은 반으로 줄이고,
 진심을 두 배로 채우는 지혜!

여기 관참은 화승이 있습니다.
 욕심과 진심의 황금비율로
 61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더 관참은 화승을 일구어낸
 화승 사람들!
 더불어 함께
 좋은 사람이,
 화승 사람을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관차니즘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관참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



괜찮아요

Are you OK?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아야 하기에.

‘남’ 말고 ‘나’만 위로하기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의 위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내가 누구를 달래기에 앞서 나 자신부터 위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왜 답답한지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

회사원 김화승 씨(38, 가명)는 요즘 어딘가 답답하다. 가슴이 막힌 듯 호흡이 가쁠 때가 많고, 동료들을 만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 걸핏하면 술 먹자는 박 부장님이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사가 있어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 회사 일도 문제는 없으나 집에 가면 은근히 짜증이 올라온다. 토끼 같은 자식들과는 기운이 없어서 놀아주기 힘들고, 그저 조용한 곳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증상을 내과에 가서 설명했더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라고 한다. 최근 원인을 모르는 답답함을 이유로 내원하는 직장인들이 늘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치료에 그리 어려움은 없다. 두근거림, 호흡증가로 인한 답답함, 식은땀, 소화불량 등 모두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자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일단 작은 알약 몇 개를 처방한 뒤 2~3주간 복용하게 하면 좋아졌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왜 힘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두 달 세 달이 넘어가도 그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여전히 차도가 없으니 내원해서도 불평불만. 듣는 의사 입장에서도 이견 뭉치 하는 생각에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당신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현대사회에는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졌다. 주변 지인들에 대한 분노를 주체 못 하는 여자,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며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남자, 겁먹은 표정으로 미래가 불안하다며 찾아오는 20대들도 많다. 그러나 막상 분노 폭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30~40대가 많다. 취직과 결혼에 성공했지만 경제 위축으로 인해 원하는 삶은커녕, 도태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감의 표시인 것이다. 앞 사례의 김화승 씨는 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내가 그에게 묻는 것은 두 가지다.

Profile

날카로운 말투로 친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일명 ‘족집게 의사’ 송형석. 마음과마음 정신과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MBC <무한도전>의 ‘정신감정편’에 출연해 멤버들의 심리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행동 패턴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첫째, 당신은 왜 불안할까요?

원래 불안이란 자신에게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생기는 것이다. 우선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책상 앞에 적힌 메모, 예쁘지만 떠들 때는 미운 아이들, 고장 난 오디오, 잘못 산 볼펜까지...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이 스트레스다. 단지 이를 모두 인지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모른 척할 뿐이다.

둘째, 혹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를 상쇄시켜줄 만한 행동이나 장소가 있나요?

예를 들어 ‘이것만 할 수 있어도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곳에 가 있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죠’ 같은 장소가 있는 지다. 만약 없다면 기분이 좋아질 만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이라는 책이 있다. 위로할 때는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말고 나만 위로하자.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위로받을 만한 장소나 행위를 찾아내야 한다. 일단 실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속초나 제주도로 훌쩍 떠나보자. 울레길이 좋다고 하니 걸어도 보고, 회도 먹어보자. 그러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바닷새의 걸음걸이라든가, 낯선 동네 구멍가게의 파란 의자가 당신을 위로해줄지도 모른다. 매일 보는 일상이 아닌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당신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배워나가야 한다.

결국 김화승씨가 나와 상담을 하며 반년 만에 깨달은 것은 해변에서 모자를 덮고 누워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자신을 위로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서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평생 이뤄져야 하며 그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스트레스와 끊임없이 싸울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할 일이기도 하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조병국 원장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진 날들

우거진 나무 사이로 말간 해가 짙하고 비추던 홀트일산복지타운은 고요하고, 청명했다. 조병국 원장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 지저귀는 새 소리와 휠체어를 밀고 끌며 함께 산책 나온 이들이 이뤄내는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한결 평안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서 오세요. 먼 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으며 구수하게 잘 익은 옥수수를 내밀던 조병국 원장. 명절에 손주를 맞는 여느 할머니처럼 식사는 했는지, 오는 길이 힘들진 않았는지 반가이 묻던 모습에 취재진의 마음이 어느새 포근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찼다.

엄마 잃은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준 지도 50년. 반백 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6만 입양아들에게 엄마 이상의 존재가 되어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었다. 몸이 약했던 어릴 적, 집과 학교, 병원을 쳄바퀴 돌듯 다녔던 기억과 아픈 두 동생을 손 쓸 틈 없이 저세상으로 보내야만 했던 슬픔을 겪으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원하던 소아과 의사가 됐지만 일이 녹록지 않았다. 먹고 살기 어렵던 그 시절, 배꼽에 태반까지 달린 갓난아기를 비닐 가방에 꽂꽂 싸맨 채 병원에 몰래 두고 가는 아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이른 아침부터 쌓여있는 아이들 사망진단서에 사인하는 것도 심적으로 참 힘든 일이었다.



조 원장은 고아를 '발견된 아이'라 부른다. 버려진 것과 발견된 것은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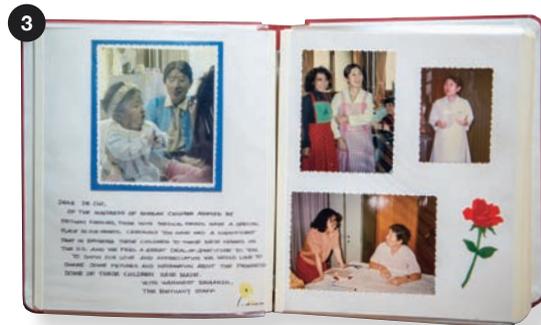
당시 근무하던 아동병원의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이들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한 조 원장은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미국 기관의 한국 지사를 찾았다. 불편함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새벽같이 기관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있던 병원이 시립병원이라 시장을 통해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일개 소아과 의사가, 특히나 여자가 가서 막 이야기를 했으니 '불평 많은 여자'로 찍혔지 뭐. 그래도 어떡해요.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개선사항 하나 이야기 못 하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지."

따스한 손길 한 번 느껴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그녀는 아기들을 입양기관에 보내기 시작했다.

"입양을 꺼리고 쉬쉬하던 국내와 달리 해외 입양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어요. 이왕 보내는 거 잘 키워줘야겠다는 생각에 위탁가정에 맡겼고 '웰 베이비 클리닉'을 열어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죠. 아이 한 명을 진료하는데 아이를 들었다 놔다, 뒤집었다 얹었다 그렇게 매일 80명 이상을 진료하니 어깨가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1,3 입양 보낸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 2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 양부모와 함께 진료 보는 조 원장 4 미국 입양 가정 방문 시 5 은퇴 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돌보는 조 원장



조 원장이 키워 보냈던 아이가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어 나타났다. 그가 기적적으로 얻은 둘째 딸의 이름은 '말리 병국'이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조병국 원장의 일은 단순히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이가 새 가족을 만나 차별당하고 살진 않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가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다. 가정 방문을 위해 미국까지 날아가 아이들이 사랑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야 마음을 놓았던다. 한평생을 가여운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 그녀의 삶에 위로의 촛불을 켜 것 또한 아이들이었다.

"이건 장애아들만 데려간 기관의 사회사업가가 직접 만들어 준 선물이에요. 이런 걸 받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했던 시간들, 막상 내 자식들을 돌보지 못한 미안함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지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자 조 원장이 별떡 일어나 꺼내온 앨범 속에는 그동안 입양 보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해맑은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60~70년대에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이젠 엄마가 되어 가족과 함께 와요. 지금도 아들하고 입양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건 참 뿌듯한 일이지요." 의료비를 지원받으려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날들, 외국에서 지원받은 의료기기가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 시절 생각에 젖어있던 조 원장의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진다. "열심히 하긴 했어. 정말." 나지막한 그녀의 혼잣말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선 은퇴했지만 지금도 그녀는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걸을 수 있는 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소임은 다 하겠다던 조병국 원장. 그녀의 얼굴에, 손끝에 패인 주름이 그간의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인 듯 빛났다. 🇰🇷

화승네트웍스 염진혁 사원의 타향살이 이야기

혼자여도 괜찮아요

무서운 건가, 귀여운 건가, 진지한 건가, 웃긴 건가.
서울역에서 만난 화승네트웍스 경리팀 염진혁 사원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애매모호'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왜 취재하러 왔느냐며 부끄러워했지만 정작 촬영에
필요한 의상과 소품은 꼼꼼히 준비해왔다.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여 피식 웃음이 나왔다. 서울역사 내에서
멀뚱히 서 있는 그의 모습에 취재진은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본인 말로는 서울에서 꽤 오래 살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영락없이 갓 상경한 시골 총각이었다.



스마트한 세상이지만 아직은 아날로그가 어울릴 것 같은 남자, 애매한 인상으로 사람을 헛갈리게 하지만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무한 매력을 발산하는 염진혁 사원. 대구가 고향이라던 그의 말투에는 살짝 경상도 억양이 남아 있었지만 서울 사람 특유(?)의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20살 젊음의 패기로 서울에 상경해 벌써 13년 차라는 그의 일상은 의외로 평범하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지 않던가. 날 때부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 터, 염진혁 사우는 오랜 타지생활로 자연스럽게 생존형 셰프가 되었다.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때론 귀찮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카레처럼 한 번 해놓으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로 만든다고 한다. 솜씨가 꽤 괜찮다며 한 번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썩 믿기지 않아 거절했다. 혹시 염진혁표 카레를 맛보고 싶은 분들은 여의도 그의 자취방을 방문해 보자. 그는 서울 생활의 장점으로 지방보다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꼽았다. 덕분에 레یدی 가가, 파 이스트 무브먼트 등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를 마음껏 즐기곤 한다.



여러분,
염진혁 표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여의도 저의 자취방을 방문해 주세요!

한강변에서 운동을 즐기다 보면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지요.

또 운동을 즐기는 염진혁 사우에게 한강 변은 최고의 조깅코스다.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삭막한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 생활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은 법.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마련한 저렴한 자취방에서 생기는 문제도 피할 수 없다. 겨울에 공공 열어붙은 수도관을 헤어드라이어로 녹여가며 겨우 씻은 적도 있단다. 그래도 청소며, 요리며 무엇 하나 놓치는 것 없이 씩씩하게 생활 중이다. 타향살이는 언제나 외로움과 그리움의 연속이다. 회사동료와 친구들, 애인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많지만 100%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제대로 효도도 못한다며 내내 아쉬워 한 염진혁 사우. 특히 맛있는 것을 먹을 때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 한 달에 두어 번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자주 연락할 때일 같이 있는 것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을까. 그는 늘 그리운 어머니의 된장찌개 대신 카레라이스로 배를 채우고, 지옥철 2호선과 함께 고군분투 타향살이 중이다. 🇰🇷

용감무식 두 남자의 중국 화승 탐방기



화승그룹 홍보팀 박치선 대리와 심일욱 사수가 중국으로 떠났다. 이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화승의 중국 법인들을 모조리 파헤치고 오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길을 잃고 국제 미아가 되는 건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났지만 일단 용기를 냈다. 해외출장 NO, 중국 여행 NO, 중국어 NO! 해본 것도, 되는 것도 없는 용감 무식한 두 사람의 좌충우돌 중국 화승 탐방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박치선 대리예요~



보통 비행기를 타면 음료수만 주던데 오늘은 왜일로 밥을 준다. 30분 전에 먹은 돈육 김치찌개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싸냐. 실컷 먹고 한 숨 푹 잤더니 어느덧 낮선 땅, 중국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코끝으로 전해지는 특이한 '스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나누는 무수한 인파 속의 우리 두 사람.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북경공항을 서성거렸다. 시간이 꽤 흘러 올상이 되려할 때 즈음 감사하게도 마중 나오신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했건만 어랏? 중국 사람이었다. 할 수 있는 말은 '니하오'뿐, 하지만 우리에게겐 바다랭귀지가 있었다.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

손짓 발짓으로 무사 입성한 북경화승R&A 기차배건유한공사(이하 HSB)는 흡사 한국에 있는 화승R&A 건물과 무척이나 닮아있었다. 이곳에서 중국 해외법인의 모든 주재원을 통틀어 가장 오래 중국 생활을 하신 박수길 부장님이 우리를 맞아준다. 1988년 지금의 화승T&C인 대보섬유에 입사해 중국 생활만 20년 넘게 하셨단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열고 주변 정리 후, 중국어 공부를 하신다. 한눈에 봐도 성실함이 몸에 밴 분 같았다. 14억 인구 중국의 수도 북경, 그곳에 HSB가 자리한다. 2003년 6월에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인 웨더스트립, 저압호스, 고압호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 HSB에 최근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고객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완성차 업체에 판매, 중국 시장에서의 품질과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제품의 생산과정을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었다. 넓은 부지의 공장, 바빠 돌아가는 기계들을 보니 HSB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이렇게 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중국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된다고 하니 괜스레 제품들에 애착이 간다. 큰 공장 한 바퀴를 돌아보니 긴장 풀린 배가 서럽게 울기 시작한다. 예년보다 시원해진 날씨 속에 힘차게 발을 옮겼다.



1

1 웨더스트립, 저압호스, 고압호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 HSB. 2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쉼 없이 돌아가는 HSB 생산 현장.



2

INTERVIEW



북경화승R&A
기차배건유한공사(HSB)
권태곤 법인장



“책임감이 저를 철들게 했죠”

북경화승R&A기차배건유한공사
법인장으로 온 지 5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국에선 품질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이곳에선 업무 전체를 아울러야 해
어깨가 더욱 무겁다. 또 중국 직원들의
업무 스타일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초반엔 걱정을 좀 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어려워하는 직원이 있으면 먼저 장난도
치고, 말도 건다. 대화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 형성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인장으로서 HSB를 이끌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관리해야 하는 직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많은 직원의 업무를 컨트롤할 순 없기에
평소 소통을 통한 팀워크를 중요시한다.
훌륭한 팀워크로 직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선봉장이 되어 나를 끌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강조하는 소통이자 북경화승
R&A기차배건유한공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북대시장, 그곳엔 중국이 있었다

15분가량 차를 타고 이동해 도착한 곳이 '북대시장'.
우리나라 5일장과 비슷한 느낌에 붉은색, 금색으로 된
간판들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원래는 순수도로였지만
하나둘 생겨난 노점들이 모여 지금은 도로와 시장이
함께 공존한 형태가 되었다. 신나게 돌아다니는 중
눈길을 사로잡은 먹거리가 있었으니, '설마 오리?'하며
의심스러웠지만 그것은 분명 두 눈 달린훈제오리였다.
그래 이곳은 다리 달린 건 책상 빼곤 다 먹는다는
중국이다. 문화적 차이일 뿐이리라. 그때 꽤 많은
사람들 손에 들려진 꼬치가 보였다. 용기를 내어 한입
먹어보았다. '미엔' 면으로 만든 꼬치였는데, 생각 외로
맛이 좋았다. 하지만 하나라도 총~분 했다. ㅎㅎ~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북대시장을 뒤로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중국에서의 첫날 밤. '난 누구고,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될 만큼 정신없이
움직였던 하루였다. 내일은 과연 또 어떤 스펙터클한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됨...Zzz...다.



1 '미엔' 면으로 만든 꼬치.
중국 특유의 향신료를 뿌려
먹으면 더 맛있다.
2 말로만 듣던 북경 훈제오리.



태창으로 향하다

다음 날, 오늘의 목적지는 화승특종고무(태창)
유한공사(이하 HSR)와 화승기차배건(태창)
유한공사(이하 HST)다. 촉박했던 아침시간,
행여나 비행기 놓쳐 국제 미아 될까봐 부리나케
공항으로 이동했다. 역시 인구가 많은 나라답게
검색대 앞은 사람들로 붐볐다. 비행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다들 여유 있는 표정이다.
검색대 통과 후 죽어라 뛰었다. 가까스로 비행기에
올랐건만 이게 또 웬일, 비행기가 연착된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항의하거나 큰소리를 내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중국의 만만디(慢慢的) 정신인가 싶어
당황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며 HST, HSR가 있는
강소성으로 향했다.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

HSR은 HST와 HSB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사업군의 제품들인 웨더스트립, 고압호스,
저압호스의 원자재인 CMB(Carbon Master Batch)를
생산하는 곳이다. 현재 CMB는 HST, HSB 등 중국
시장에 공급·판매되고 있으며 세계 NO.1을 목표로
품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에서 뜨거운
온도의 커다란 기계가 검은 고무덩어리를 실 새 없이
토해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날쌔 돌이처럼
뛰어다니며 일하는 한 중국 친구의 일이 제일 쉬워
보여 나도 도전해보기로 했다. 제조과정의 마지막
CMB가 나오는 것을 적재·포장하는 작업인데...
오히려 일을 더 만들어 버렸다. 중국 친구야 미안.



1 적재되어있는 CMB들은 HST, HSB 등 중국 시장에 공급·판매된다. 2 CMB의 마지막 적재 및 포장 단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INTERVIEW



화승특종고무(태창)유한공사(HSR)
임영한 법인장



“나에게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입니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편이신가요?

일에선 남보다 뒤처지는
걸 싫어한다. 처음 화승화학
(현, 화승R&A)연구소에 입사했을 때 학창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
전공서적과 고무관련 일본 서적을
섭렵하고, 고무 배합 실험과 기록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다. 이런 성격 탓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의 법인장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신입사원 시절 에어컨 호스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일본 니찌린社에서 받은 재료를 배합해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라공조 8,000m



에어컨 호스 첫 오더를 받았다. 미미한
수량이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에어컨
호스 사업의 가속화가 이루어졌다.
법인장으로서 HSR의 중국 현지법인
비전과 역할에 대한 책임이 남다르
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HSR의 목표와 비전 계획 수립이
완료했다. HSR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세계
일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원들에게
'완벽한 업무 습득'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된다. 하지만 반복된 실수에 있어
서는 엄격하다. 그래야 최고의 제품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화승기차배건(태창)유한공사

중국 법인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HST. 현장 직원만 1,100여 명이나 되며 자동차 수요 급증에 따라 작년에는 2공장이 완공되어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중국에 진출한 SGM, 길리(Geely), 체리(CHERY) 등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으로 역수출까지 된다고 하니 HST의 위용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1공장에는 웨더스트립과, 고압호스, 2공장에서는 저압호스가 생산되고 있었다. 작업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화승인의 노력과 정신이 깃들어 있음이 느껴졌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다 문득 드는 의문. 현장이 너무 깨끗한 거다. 기름때 찌든 칙칙한 공장을 상상했는데, 정말 깨끗했다. 고객의 요구보다 월등한 제품을 만든다는 목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HST의 모습이다.



1 20~30여 개의 실타래가 빠른 속도로 한 개의 호스에 얽히는 편조 과정. 호스가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공정이다. 2 해 질 녘, HST 제2 공장 입구. 3 HST의 고압호스는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생산된다.

- * 웨더스트립이란? 차체 또는 도어에 장착되어 먼지, 물 등의 실내 유입 방지하는 조건 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고무를 일컫는다.
- * 고압호스란? 브레이크호스, 파워스티어링호스, 에어컨호스로 나뉜다. 브레이크호스는 고압의 유압을 바꿔까지 전달하여 제동하는 역할. 파워스티어링호스는 고압의 유압을 통해 부드러운 핸들 조작을 가능케 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에어컨호스는 냉매압축기에서 토출된 냉매를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 * 저압호스란? 차량에 부착되는 유연한 호스로서 각종 매체(연료, 오일, 물 등)를 수송하고 각 부품 간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후성, 내열성, 유연성이 뛰어나다.



4 HST에서 생산되는 저압호스는 내후 내열 유연성이 뛰어나다. 5 HST에 마련된 홍보관. 이곳에는 HST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6 자동차 수요 급증에 따라 건설된 HST 제2공장. 웨더스트립 및 저압호스가 생산되고 있었다.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힘찬 비상을 준비 중이다.



HST와 HSR은 고무 사용량 최대 밀집 지역인 강소성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기술 인력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감한 설비투자과 생산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HST와 HSR은 현재 기업체질 개선 및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기존 거래선 관리 강화를 통해 신규 거래선을 개척하고 고객 중심의 비전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非자동차부분 아이템 기술도 개발하고자 한다.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중국 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힘찬 비상을 준비 중이다.

중국 강소성에 위치한 태창의 심장 HST와 HSR.



짬!
심일록 사원입니다~



중국은 컸다. 북경에서 상해로 가는 거리만 해도 벌써 서울-부산의 거리를 훌쩍 뛰어넘는다. 산이 많은 한국과 달리 태창과 상해 주변으로는 평지가 끝없이 이어져있다. 신기하다며 연신 “우와”를 연발하는 후배 직원이 부끄러웠던 것일까. 박 대리는 자는 척하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친신만고 끝에 태창의 HST, HSR의 취재가 끝나고 점점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근처 5분 거리에 있는 화승그룹의 또 다른 해외법인, 화승태양에너지(태창)유한공사 (이하 HSP)로 향했다.

화승태양에너지(태창)유한공사

2011년 9월, 세계 최대의 태양광 모듈 단일시장인 중국 쑤저우시 인근 태창에 설립되어 화승그룹의 글로벌 에코 프로젝트 전진기지로서 중국에서 세계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HSP. 태양광 모듈 내에 습기침투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태양전지를 보호하고, 20~30년 이상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재인 EVA 시트(Ethyl Vinyl Acetate Sheet)를 생산하는 HSP는 이미 중국 시장 내에서 높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정평이 나왔다. 안내를 맡아주시는 박기영 과장님은 붉게 물들어 있는 HSP 공장을 가리키며 공장 색깔이 현지화되었다며 농담을 하신다. 중국인들은 붉은색과 황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의 시조로 일컫는 염제와 황제의 색상으로 중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색깔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빨간색은 웬지 야한 느낌이 들어 괜스레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즈음 HSP 법인장으로 근무 중이신 김병준 이사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해주셨다. '성실한 청춘'을 알려주시는 법인장님의 인터뷰가 (P.83 CEO Memories 코너 참조)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장 견학에 들어갔다.



1 HSP에서 생산 중인 EVA 시트. 필름의 광투과율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 내 기술연구소에선 끊임없는 개발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2 전자동 공정을 거쳐 나온 EVA 시트 롤을 마무리하는 현장 직원들. 3 하루 10톤 이상 생산되는 HSP 완제품은 진공 형태로 포장되어 물류창고에 보관된다. 4 레드컬러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HSP 법인 전경. 5 EVA 시트로 조립된 태양광 모듈 샘플. 6 고소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중국 전통 국수, 싹쓰면.

이물질에 민감한 제품 특성상 보호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마친 뒤 현장으로 들어가니 공장 밖의 붉은 풍경과는 다르게 하얀 바탕에 최첨단 설비들을 보니 마치 먼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생산부 지홍배 부장님의 친절하고 완벽(?) 설명을 듣고, 잊지 않으려 설비들을 촬영하려 하니 내부 중요 시설의 모습들은 밖으로 유출이 금지된 기밀사항이라고 한다. 나란 남자, 기밀을 목격한 남자. 법인을 꼼꼼히 둘러본 후 오랜만의 한국 손님을 반갑게 여겨주시는 HSP 법인장님과 주재원 덕분에 친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왕 출장 온 김에 중국 특유의 음식을 꼭 먹고 돌아가고 싶다는 김치 청년들의 성화에 법인장님은 중국 전통 국수집으로 데리고 가주셨다. 뱀장어라는 설, 미꾸라지라는 설, 정확한 주재료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맛보게 된 검은 소스의 국수, 싹쓰면. 익숙지 않은 비주얼에 잠시 식욕이 감소했으나, 한 젓가락 후루룩 빨아올리니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는 게 너무 맛있어 “유레카”란 소리가 절로 나왔다. 태창의 밤은 모두가 그렇게 기분 좋은 배부름으로 마무리됐다.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

전에 없던 교통체증, 드높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상해시내로 들어서자 활발한 중국이 눈앞에 펼쳐졌다.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도착한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HSS) 사무소. HSS 법인장으로 근무 중인 황인철 부장님이 한심한 미소로 반갑게 환영해주셨다. 근무 중인 주재원은 황인철 부장 단 1명. 현지 직원 3명과 함께 극강의 전쟁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해의 중심가에서 활약 중이다. 상해를 거점으로 하는 종합무역법인으로서 화승그룹에서 생산된 각종 필름제품과 자동차 제조용 원부자재, 기타 정밀화학 관련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과 제3국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원자재 현지화 소싱(Sourcing)을 통한 국내로의 구매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태양광소재사업과 자동차 부품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공간이다.

INTERVIEW



화승국제무역유한공사(HSS) 황인철 법인장

“화승은 나에게 도전하라 말하네”

HSS의 업무 영역을 소개해주세요. 중국 진출 해외법인 원자재 구매부터 무역, 영업, 시장조사 등 본부의 창구 역할을 하기에 늘 바쁘다. 중국 법인으로 오신 지 9년째입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화승R&A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발령받았다. 1년 넘도록 일주일에 3~4일 출장 다녔다. 정착 미팅 시간은 두어 시간,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더라. 또 왜 그렇게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던지, 지금 생각하면 그저 웃음만 나온다.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나요? 생존이 걸린 문제라 노력하면 다 되더라. 늘 음식 주문을 하다 말문이 막히곤 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맥*날드에 빅맥 세트 배달을 시켰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화승은 끊임없이 세상에 도전하게 만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업무에 대한 욕심과 기획부터 결재까지 혼자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 덕분에 이를 막 물었다. **HSS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지키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화 <We Were Soldiers> 주인공 멜 김슨은 항상 제일 먼저 적지에 들어갔다 제일 나중에 나온다. 그 영화를 보면서 진정한 리더란 많이 외롭고, 막중한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 사람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 역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나중에 퇴근한다. 내 손으로 마감을 해야 마음이 놓이거든.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도둑이 들까봐(웃음).



화려한 상해의 낮과 밤

본격적인 상해 투어가 시작되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지 않던가. 평생 진행 중이던 다이어트를 잠시 접고 꼬치구이 가게로 향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중국식 꼬치구이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꼬치구이 가게는 스케일이 달랐다. 수많은 꼬치 중에서 중국 대부분의 요리에 향신료로 쓰이며 한국인들은 익숙지 않아 잘 먹지 못한다는 상차이(香菜) 말이 꼬치를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미각을 잃었다. 아무리 입을 씻어내도 특유의 향이 지워지지 않았다. 황인철 부장님은 또 다른 중국 특유의 음식으로 알려진 취두부(臭豆腐) 튀김을 추천해주셨다. 생각보다 향이 괜찮아 덩석 물어 삼켰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이유는 경험해보시길.



워낙 넓다보니 하루 만에 곳곳을 둘러볼 수 없어 황 부장님의 추천으로 중국식 옛 정원의 모습을 간직한 상해 예원(豫園)에 도착했다. 예원은 호심이 가득 담긴 정원으로 지금부터 약 4백 년 전 명나라 반유단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조성했다고 한다. 아들이 돈을 참 많이 벌었나보다. 넓은 정원과 건축물을 비롯해 아름다운 연못과 예술적으로 쌓여진 돌들을 보고 있자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저녁이 되니 상해는 더욱 빛났다. 높이 솟아오른 건물은 화려한 조명을 받고 맘껏 뽐내는 듯 보였다.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인파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라 생각해서 그럴까, 나와 선배는 말없이 그 중에 하나가 되어 조금 더 중국을 기억하고 느끼고자 휴대폰 카메라에 인증샷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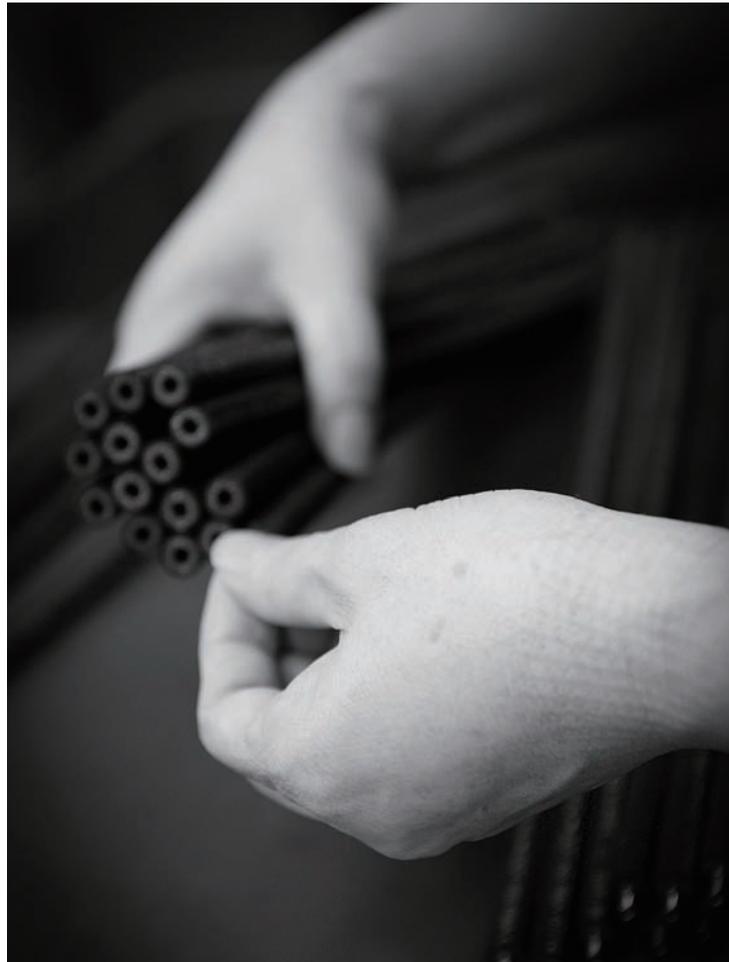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심부재언 시이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의 우리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한 글귀를 발견했다. <공부> 영화의 중국, Made in China 짝퉁으로 악명 높은 중국, 겨우 동네 중국요리가게에서나 느끼는 중국으로만 기억하며 크게 관심도 없었던 터였을까. 이번 출장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자 몰랐던 화승을 느낄 수 있었던 잊지 못할 3박 4일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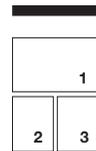


화승소재 생산팀 강창기(56)
 책상도 불펜도 창기 씨의 손도 늘 까맣다.
 카본가루로 얼룩진 작업장이지만 오늘의 보람을
 써내려가는 일지만큼은 빛이 난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도구인 손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존재의 이유가 당연할수록 아름다움의 가치는 한눈에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상을 만드는 손, 즉 일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고들 하지요. 화승의 손 역시 보이지 않는 한편에서 당신과 세상을 이어주기 위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때론 시커먼 때가 묻어있기도, 때론 쌓여있는 서류뭉치에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며 일상에 녹아있는 화승의 손. 수수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어떤 손보다 자랑스럽고, 수려한 화승의 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화승인더스트리 OPP팀 정지석(56)
퇴근길은 언제나 즐겁다.
오늘 하루도 현장의 묵은 때를 시원한 물줄기로 씻어내는
지석 씨의 손에선 기분 좋은 콧노래가 흐른다.



1 화승인더스트리 OPP팀 조주현(50) 얇고 투명한 OPP 필름 제작을 마무리 하고 있는 주현 씨의 손. 행여나 제품에 상처가 날까 조심스레 만지는 그의 두툼한 손에선 의외로 여인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듯하다.

2 화승공조 생산지원팀 쏘투우소(34) 고향 미안마를 떠나 화승공조와 함께한 지 어언 8년. 날렵한 손놀림으로 에어컨 호스를 검수하고 있는 이 손은 외국인이 아닌 화승인의 손이다.

3 화승R&A FL생산팀 전명희(51) 공정을 거쳐 잘려 나온 브레이크 호스를 조립하는 17년 장인 명희 씨. 고왔던 지난날의 손은 주름이 졌지만 화승의 어머니가 되어 매일 자식들을 어루만지는 지금 그녀의 손도 한없이 아름답다.



1

1 화승엑스월 벨트사업2팀 손상형(33) 미팅하라, 전화하라, 메일 보내라, 실 틈 없는 대한민국 영업인 상형 씨에겐 1분 1초가 너무나 소중한다.

2

2 화승T&C 연구팀 최홍석(46) 그의 손을 거친 신발들은 모두 날날이 분해된다. 익숙한 칼 놀림으로 고객사 신발의 접착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홍석 씨의 손. 그의 손은 늘, 유행할 신발을 미리 꿰뚫고 있다.



화승네트웍스 섬유사업부 성지혜(30)
인생은 배배 꼬여있는 실타래 뭉치와도 같다.
고객의 요청에 다시 한 번 원사(原絲)를 확인하는
지혜 씨의 손은 가끔 지난날 풀었던 인생의 실을
되감아 보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허기진 내 영혼을 채워주는

Soul Food

소울 푸드



Bread

빵

회승R&A FL해외영업1팀 최향민 사원

갓 구워 나온 빵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의 향수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맛벌이로 인해 끼니를 종종 빵으로 때우곤 했었지요. 지금처럼 프랜차이즈는 커녕 동네 빵집도 귀하디귀했던 시절, 부모님과 함께 빵집을 방문할 때면 구수한 냄새만큼 그 맛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맛집만큼이나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저의 소심한 집착(?)은 유년기의 행복한 추억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맛있는 빵을 찾거나 먹을 때면 어린 시절의 걱정 없던 아이처럼 마냥 행복해집니다.

영양 만점의 고급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의 기억과 감성 그리고 헛헛한 영혼까지 가득 채워주는 그 맛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다. 어르신 손맛부터 조미료 감칠맛까지, 떠올리면 살아갈 힘을 북돋워 주는 지극히 사적인 소울 푸드 이야기.



Lasagna

라자냐

회승T&C 연구 2팀 박상운 사원

아일랜드 어학연수 시절 한집에 같이 살게 된 이탈리아 친구들.

서로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쯤 각자 나라의 음식을 만들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었더랬지요. 저와 제 친구는 불고기를, 이탈리아 친구들은 라자냐와 파스타를.

라자냐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때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이탈리아 음식 라자냐.

이 음식만 보면 이탈리아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으며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요리 방법까지 제대로 터득하게 되어 가끔씩 친구들과 와이프에게도 만들어 주곤 합니다.



Potato

냄비 바닥에 늘어붙은 찢 감자

네트웍스 섬유팀 성지혜 대리

지금도 감자를 보면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손수 찢 주신 감자 생각이 납니다. 늘상 먹곤 했던 것이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훌쩍 크고 나니 번거로움도 잊으시고 가족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신 할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지네요. 서울 근무하기 전까지 저의 초·중·고등학교 시절 입맛과 건강을 책임져준 할머니표 찢 감자. 특히나 냄비 밑바닥에 늘어붙은 감자를 서로 먹기 위해 욕심각심했던 언니들과의 추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Noodle

오뚜기 스파게티로 만든 뽕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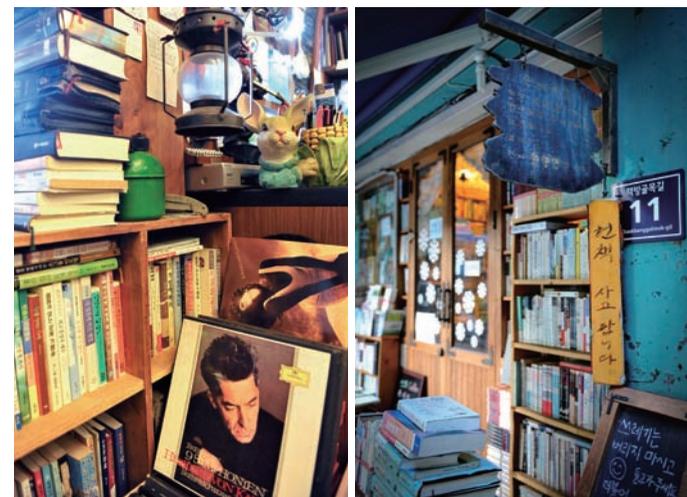
회승엑스월 호스사업팀 이각훈 사원

소식적 군대에서 야간 근무 후 열심히 '뽕사 먹던' 뽕글이. 골고루 잘게 부수고~ 후레이크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면발이 익기까지의 3시간 같은 3분을 기다리고~ 양념 스프를 넣고 골고루 비벼서 숟가락으로 왕창 퍼서 먹으면 끝! 봉지 밑바닥 가장자리에 남은 뽕글이는 말년 병장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백미이지요. 적은 돈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맛볼 수 있는 저만의 소울 푸드랍니다.

소소한 힐링, 비오는 부산

소소한 책방

보수동 헌책방 골목. 한국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숨어지고 온 책들을 사과 껍질에 올려놓고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된 헌책 시장이다.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명소가 되었지만 활기찬 헌책 거래보단 관광지로써 겨우 명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비 냄새와 헌책의 냄새가 공존하는 골목사이에서 우연히 들린 '책의 마음'. 정통 헌책방도 아닌, 두어 사람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작스러운 비를 맞은 여행객의 쉼터로선 충분했다. 다소 까칠해 보이는 사장님은 비에 젖어 서글픈 여행자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독일의 어느 피아니스트의 연주곡을 LP 판으로 들려주셨다. 턴테이블의 감미로운 연주곡에 빗소리가 더해지니 비 오는 부산이 더 좋아졌다. 책, 영화, 사는 이야기, 세대를 초월하는 사장님과의 정겨운 대화로 2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쉽게 돌아선 '책의 마음'. 다음 기회에도 꼭 방문하고 싶은 여행객의 소소한 쉼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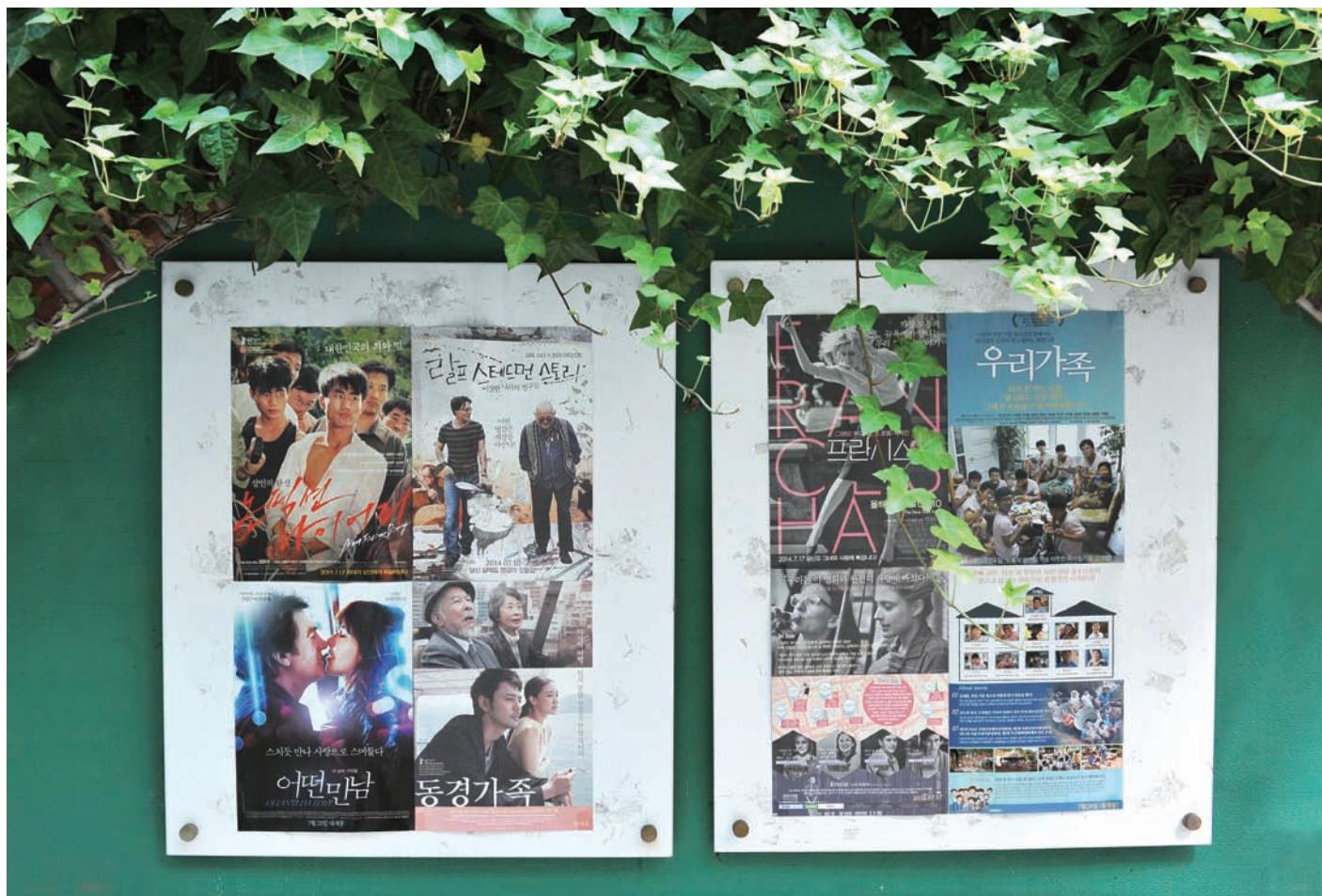
'부산에 가면 꼭 돼지국밥과 밀면을 먹어야 해' '광안대교 보면서 회 한 접시는 해야지' 부산이 고향이거나 부산 여행을 다녀왔던 지인들의 이야기. 인터넷 후기 등 부산 관광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모두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겐 조금 다른 자극이 필요했다. 나만의 부산을 찾고 싶었던 욕구는 비 내리는 부산에서 특별한 추억으로 가슴에 남았다.



* 이 글은 DBT 독자엽서에 사연을 보내주시신 정지오님의 글을 바탕으로 편집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부산에만 가면 비가 왔다. 처음 부산을 찾은 2년 전부터 그랬다. 며칠 간 머물렀음에도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처음엔 짜증이 나더니 이젠 오히려 익숙해지고 당연해졌다. 나의 부산엔 언제나 비가 왔다.

- 정지오님의 독자엽서 중 -



소소한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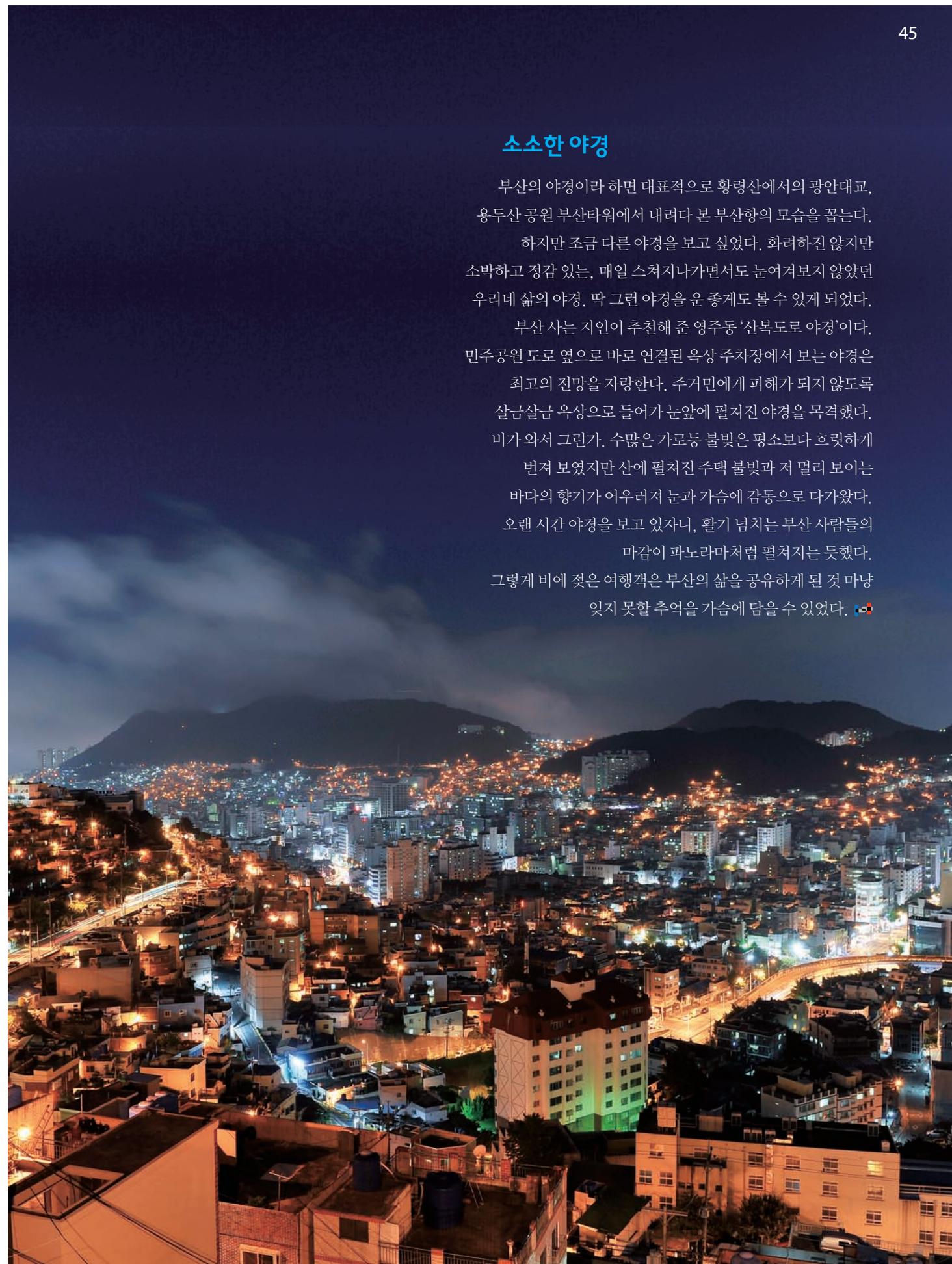
2013년 부산방문 당시 꼭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다.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두 남자의 우정, 프리다이빙의 열정을 그린 영화 <그랑블루(1988)>다. 영화를 보는 동안 아름다운 바닷물 속의 장면이 전율을 불러일으키며 감동으로 다가왔다. 마침 이 영화가 재개봉했던 곳이 '국도예술관' (구, 국도극장)이다. 이렇듯 종종 오래된 영화를 재개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국도예술관'은 부산에서 몇 안 되는 인디영화 상영관이다. 약 150석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부산에선 보기 드문 인디영화관인 만큼 부산 영화마니아들에게 성지로 불리운다. 소소한 인디영화 한편 때리고(?) 싶다면 국도예술관의 공연 시간표를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Busan!!



소소한 야경

부산의 야경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황령산에서의 광안대교,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의 모습을 꼽는다. 하지만 조금 다른 야경을 보고 싶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정감 있는, 매일 스쳐지나가면서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우리네 삶의 야경. 딱 그런 야경을 운 좋게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부산 사는 지인이 추천해 준 영주동 '산복도로 야경'이다. 민주공원 도로 옆으로 바로 연결된 옥상 주차장에서 보는 야경은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주거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살금살금 옥상으로 들어가 눈앞에 펼쳐진 야경을 목격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수많은 가로등 불빛은 평소보다 흐릿하게 번져 보였지만 산에 펼쳐진 주택 불빛과 저 멀리 보이는 바다의 향기가 어우러져 눈과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왔다. 오랜 시간 야경을 보고 있자니, 활기 넘치는 부산 사람들의 마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듯했다. 그렇게 비에 젖은 여행객은 부산의 삶을 공유하게 된 것 마냥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담을 수 있었다. 🇰🇷



괜찮(지 않)아요

I'm (not) OK.



구겨져도, 짓밟혀도
괜찮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
하실 건가요?



‘예니오’ 가 아닌

‘아니오’를 말해보기

“김 대리,
오늘 저녁에 별일 없음 소주 한잔 할까?”
“네!”

“박 과장,
내가 무리한 부탁하는 건 아니지?”
“네, 아닙니다.”

대개 직장에서의 예스맨(Yes Man)들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라기보단 행여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예스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사의 부탁이나 요청에 “No”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은 싫어하는 여성이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승낙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렇다면 상사가 부하 직원의 속마음을 모를까? 다 안다. 본인도 그런 시절을 거쳤기 때문이다. 다만 “Yes”라고 해주길 바랄 뿐. 인간은 남의 사정이라 어쩔든 본인의 부탁에 긍정적인 대답을 듣길 원한다. 이는 곧 예스맨들은 철저히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예스맨들이여, 그럼 진짜 당신은 누군가? 조직생활이라 어쩔 수 없다고? 혹시나 모를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책상에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하는 부탁은 전부 됩니다’ 라고 적어놓으면 된다. 한 번쯤 잘 생각해볼길 바란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저 “Yes”를 외치는 버릇이 이미 DNA에 새겨져 있진 않은지.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상사나 혹은 직장동료의 어려운 부탁에 영혼을 실어(?) 진심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해보자. 사실 한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으며, 전치 6주의 폭행을 당하지도 않는다. 회사 차원에서도 예스맨보다는 “No”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유교문화, 군대식 문화가 뿌리박힌 한국의 직장생활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이다. 한국 모 항공사에서는 기장과 무기장과의 대화를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하게끔 사규를 바꾼 뒤부터 사고가 급감했다고 한다. 기존에 다소 기장 위주의 수직적이던 소통체계를 기장-무기장 간의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 언어를 바꾼 것이다. 기장이 실수를 저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기장이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단 본인의 목소리를

내게끔 유도했다. 상사 역시 본인의 지시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이 산이 아닌가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면 된다. “내가 맞다. 괜찮다”라는 생각에 매몰되기보단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도 있다. 이처럼 구성원이 100/100인 회사보다는 99/100 + 1/100, 아니 98/100 + 1/100 + 1/100인 회사가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2013년 조사 기준으로, 한국 직장인의 근무 시간은 평균 9시간 26분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라고 하나 업무의 연장이라는 회식 시간까지 합하면 단연 최고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긴 근무 시간, 계속 “Yes”만 하고 살면 OECD 국가 중 ‘가장 불행한 근무 시간’ 1위도 한국이 차지할지 모른다. 직장 내 소통 악화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지나친 기우일까. 🇰🇷



“아니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고 나서야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 루이스 L. 헤이

Interview 3

배우 김현숙

내가 막돼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외모가 좀 못하다는 이유로 늘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는 영애는, 한마디로 막돼먹은 여자다. 하지만 그녀의 막돼먹음엔 다 이유가 있다. 허구한 날 상사한테 깨지고, 남자한테 차이며, 동료한테 시기까지 당하는 판에 막돼먹지 않고 배길 수 있으랴. 바람 잘 날 없는 일상으로 노처녀들에게 깊은 위안이 되고 있는 <막돼먹은 영애씨>의 영애, 아니 그녀보다 막돼먹기론 한 수 위인 배우 김현숙을 만났다.



막돼먹은 캐릭터로 8년째 위로 중

한국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으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현실적인 비주얼과 스펙의 영애. 그녀가 우리 곁에 온 지도 벌써 햇수로 8년이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이하 <막영애>)가 케이블계의 <전원일기>로 불릴 정도로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연 영애라는 캐릭터에 있다. 그녀가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막돼먹게' 해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노처녀들을 울리고 웃기기에 충분했다. 김현숙 역시 연기하는 내내 본인 이야기 같았으며 모든 막돼먹은 행동에 절로 고개가 고덕여졌다. "영애는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평범한 여자예요. 알미운 직장 상사에게 구두 굽으로 탄 커피와 '겨뎠'을 묻힌 식빵을 먹인 건 분명 막돼먹은 행동이죠. 날치기와 변태를 때려눕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조리한 현실을 향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막돼먹은 세상에 때로는 일침을 가하고, 때로는 치이기도 하는 영애의 삶은 그 자체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옆집 언니 같은 푸근한 이미지 덕에 실제 그녀에게도 고민 상담을 하는 이들이 꽤 많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작가, PD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속내를 털어놓는다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생각했다가 <막영애>를 보고 힘을 얻어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팬도 더러 있다. 그런 탓에 이제는 영애 역에 사명감마저 느끼는 중이다.

동갑내기 현숙과 영애, 서로에게 물들다

서른에 만난 동갑내기 현숙과 영애는 올해 서른일곱 살이 되었다. 그녀가 나이를 먹으면 영애도 똑같이 나이를 먹는 셈이다. 세월의 변화가 고스란히 연기에 녹아드니 자연스럽게 영애라는 캐릭터도 점점 성숙해져 간다. "그간 영애도, 저도 많은 풍파를 겪었죠. 골수팬들은 초창기 시즌에서처럼 '이놈의 회사 때려치우고 만다'고 말하는 화끈한 영애를 그리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매년 버럭거릴 수 있겠어요. 서른일곱에 그러면 리얼리티 떨어진다니까요. 실직자가 얼마나 초라한 처지인지 겪어봤기 때문에 함부로 욕할 수 없거든요. 이유 있는 캐릭터의 변화랄까요?"

사회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막돼먹게' 해결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노처녀들을 울리고 웃기기에 충분했다.



Cooperation tvN



영애에게 현숙의 연륜이 녹아들었듯 현숙에게도 영애의 로맨스가 스며들었다. 20대까지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독신주의를 고집했던 김현숙. 앞만 보고 달리느라 외롭단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막돼먹게>를 시작하면서부터 연애에 눈을 떴다. 드라마 속 유일한 판타지, 달달한 영애의 로맨스가 그녀의 외로움을 일깨웠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간 연애를 등한시했던 것이 많이 후회되더라고요. 서른 줄부터 숨 돌릴 틈 없이 참 열심히 했어요(웃음). 지인들한테도 무조건 많이 만나보라고 해요. 그래야 옥석을 가리는 눈이 생기죠. 영애로 살면서 교훈도 많이 얻었네요. 그녀처럼 연애하다가는 망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연애 경험을 쌓은 김현숙은 결국 몇 달 전, 사랑의 결실을 맺고야 말았다. 국가대표 노처녀 영애, 아니 김현숙이 결혼을 한 거다. 골수팬들은 '결혼'이라 쓰고 '배신'이라 읽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들고 일어날 기세다. 시즌 14 속 영애의 앞날까지 불투명해진 상황. 하지만 정작 그녀의 반응은 생각보다 '쿨'했다.

“내 딸 시집보내는 것 같아 축의금 부치시겠다고 하신 팬분들 감사합니다애!”

직장인들이여 막돼먹게 살아라!

독신주의자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개그우먼에서 연기가 된 김현숙. 넓어지는 세계관만큼이나 활동영역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다. 사실 처음부터 개그우먼이 될 요량은 아니었다. 2004년 당시, 그녀는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독특한 인기를 선보이며 방송관계자로부터 개그우먼 데뷔 제안을 받게 된다. 좋은 기회였지만 자칫 대중에게 개그우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까 봐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평생 연기를 하며 살 자신이 있었기에 용기를 냈다. 그렇게 <개그콘서트>로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딘 그녀는 '출산드라'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한편으론 연기자의 꿈을 위해 꾸준히 영화에 출연했다. 자신을 믿고 개그 무대에 선뜻 도전하고, 연기의 꿈을 접지 않은 용기 덕분에 김현숙이 지금의 '영애' 캐릭터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이기에 누구를 만나도 용기 있게, 막돼먹게

살라고 부추기기 바쁘다.

“젊을 땐 뭐든 시도해 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힘들면 어때요. 시련도 겪어보고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죠. 직장인이자면 업무 외 소소한 꿈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행, 봉사 같은 소소한 목표를 만들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예요.”

김현숙 역시 영애로 8년을 살아보니 직장인들의 고단함이 조금은 짐작된다. 그렇기에 통장을 스쳐갈 뿐인 월급, 입살맞은 직장상사와의 트러블 등으로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의 '퇴근 후 치맥'에도 격한 공감을 보낸다. 거기에 <막돼먹게> 비오는 날 에피소드를 곁들인다면 금상첨화란다.

“누구나 한 번쯤 내리는 비에 괜히 옛사랑이 떠오르는 날이 있죠. 영애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퇴근 후에 술 한잔 같이 할 사람 찾아 몇 백 명의 전화번호를 뒤져보는데, 글썄 불러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술을 마시러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비가 그쳤죠. 그 장면에서 내레이션이 나와요. '우리는 비가 그쳤다고 우산을 버릴 수가 없다. 내일을 살기 위해 어제를 버릴 수 없듯이'라고요.”

유독 나한테만 가혹한 직장생활 같을지언정, 그 경험들은 버릴 수 없다. 언젠가는 꼭 필요할 값진 교훈이 될 테니 말이다. 어쨌든 나는 이토록 화끈한 행동으로 답답한 속을 뽕 뿜어주는 의리파 언니 영애와 김현숙을 지지한다.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다짐했다. 더 막돼먹고, 더 용감해지기로. 막돼먹은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막돼먹을 수 있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니까. 🇰🇷

막돼먹은 영애씨 tvN 다큐드라마



더 막돼먹고, 더 용감해지자. 막돼먹은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막돼먹을 수 있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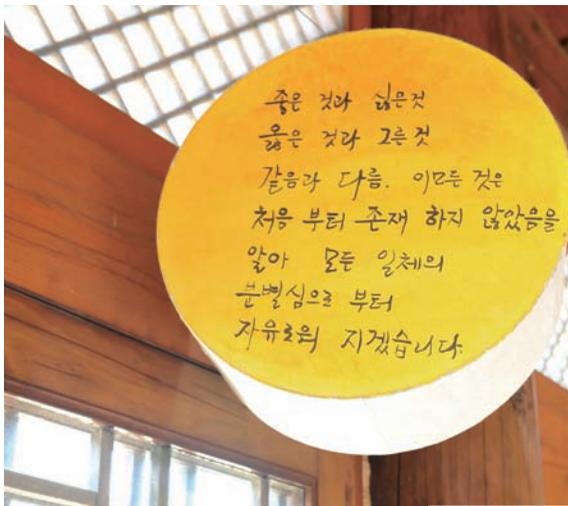
번뇌를 버리고

평온을 품으니

그제야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더라

화승그룹 임직원 범어사 템플스테이 체험

꿀 같은 주말, 금정산자락의 한 사찰로 화승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부산 범어사에서 진행되는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종교를 떠나 문화로 거듭난 템플스테이의 매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이들은 평상복을 벗고 보랏빛 수련복을 여미었다. 잠시나마 스님의 마음으로 번뇌를 쫓고, 평온한 일탈을 체험한 다섯 화승 사람. 다음은 그들이 꿀 대신 휴(休)를 느끼고 돌아와 <DBT>에 보내온 후기다.



1일차 休休하러 왔는데 한숨만 휴휴

이어지는 뻑뻑한 일정은 '휴휴 템플스테이' 라는 프로그램명에 대한 반전의 충격을 선사했다. 무리한 일정은 아니지만 이틀간 폭 쉬고 갈 수는 없겠구나 싶었다. 처음엔 불교식으로 절을 하는 법도 쉽지 않았다. 눈으로는 이해되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점점 절이 익숙해질 때 즈음 이날의 하이라이트 108서원주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이는 108번의 절을 하면서 108가지 번뇌를 없애고, 절 한 번에 각자의 염원을 담은 나무 구슬을 하나씩 끼워나가는 체험이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108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다. 오랜만에 전신운동을 했더니 어깨가 뭉치고 두통까지 찾아왔지만 어머니께 선물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럭저럭 참을 만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고, 숙소에 갔더니 참가자가 많아 운 좋게도 스님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아늑한 공간에서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소리를 들으며 스님이 된 것 마냥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종교와 인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템플스테이

상쾌한 산자락 절간의 내음으로 우리를 반기던 범어사. 어색한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육신의 힐링을 위해 찾아왔다는 아주머니, 부모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중학생들, 엄마와 싸워 탁해진 마음을 좀 털어버리러 왔다는 초등학생 등 각자의 사연에 공감과 웃음을 나누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외국인도 참 많았다는 것. 대부분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온 여행객이었다. 이틀 동안 함께한 외국인들은 사뭇 진지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단순한 휴식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심신에 담으려는 모습이 곁에 있던 우리까지 경건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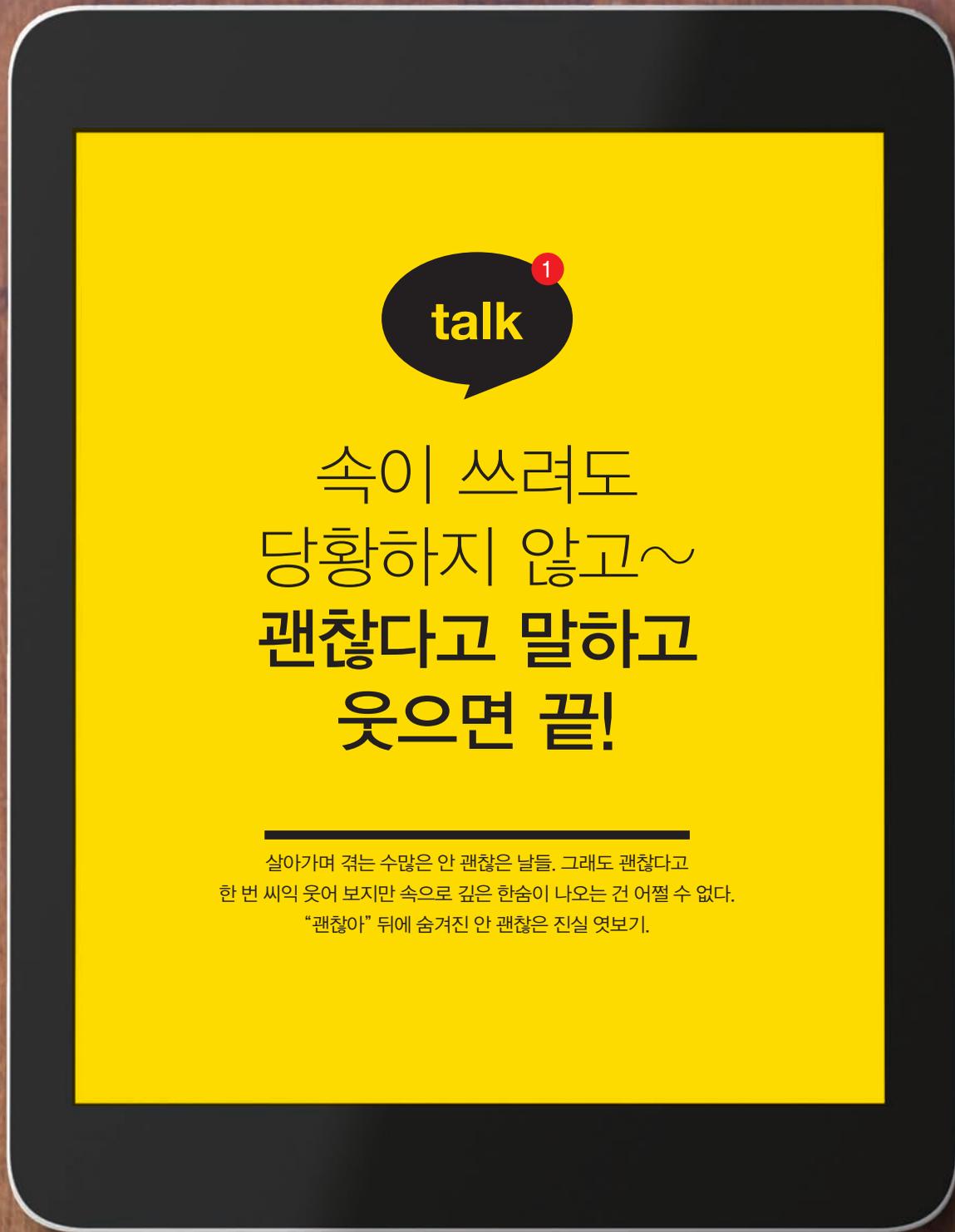


2일차 버리고 비우고 가벼워진 삶에 눈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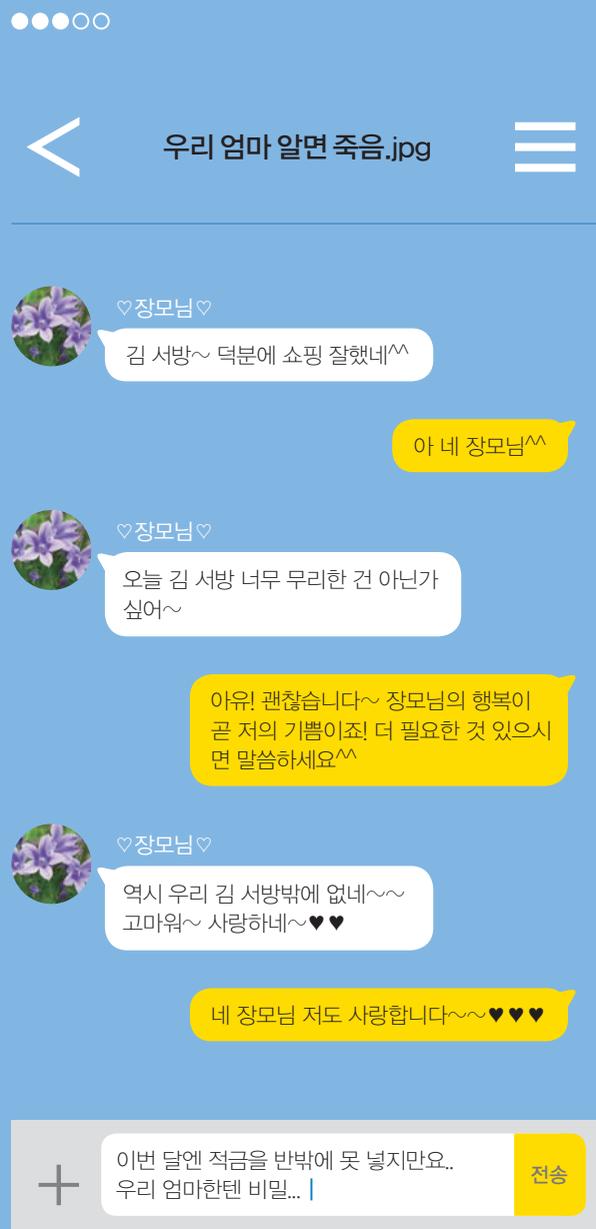
둘째 날, 아침에 눈을 뜨니 템플스테이의 참 매력이 이런 건가 싶었다. 간만에 숙면을 취한 것은 물론이요, 108배로 뭉쳤던 몸이 거짓말처럼 풀려 시원하기까지 했다. 금정산 자락으로 보이는 아침 일출은 또 왜 그리 멋있던지. 식사 역시 맛있었다. 스님들이 드시는 정통 발우공양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고 깔끔해 뭔가 내 몸까지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금정산에서 밀려오는 평온한 바람을 맞으며 암자를 순례했다.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꽤 힘든 산행이었지만 오랜만에

아침 등산을 한다는 생각으로 올라가니 정말 상쾌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안에 가득했던 부정과 번뇌를 템플스테이에서 하나씩 버리고 나니 끝날 때 즈음엔 몸과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 마음이 복잡하고 일상에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평온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찰 체험이야말로 가장 좋은 활력제와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후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속세를 벗어나 잠시 산중의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 속 범어사 템플스테이를 꼭 추천하고 싶다. 🇰🇷



안 좋은 소문은 참 빨리도 납니다. 헤어진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친구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오네요. 괜찮으냐는 물음에 안 괜찮다고, 출근하기도 싫고 눈물만 난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 자존심이 뭔지……. 사실 헤어지고 이들은 밥도 물도 못 먹었습니다. 하.. 이별의 아픔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네요.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돌아와 줘라 유나야. 이제 뽕 치고 게임 안 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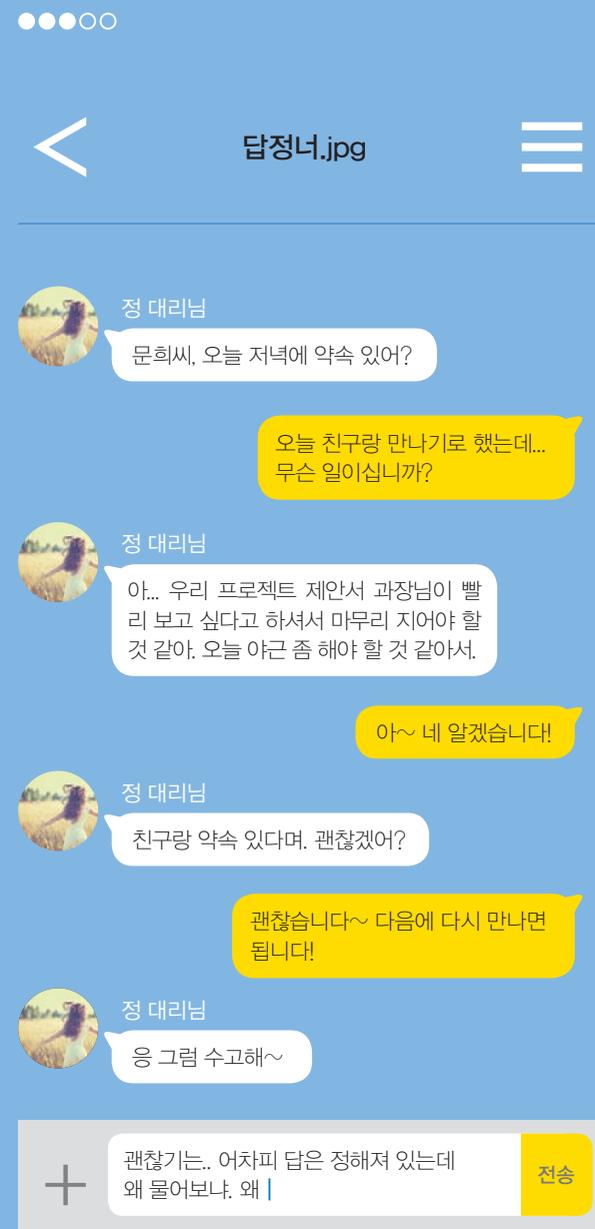
명절이나 가족행사가 다가오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내 취직을 두고 둘러앉아 얘기하는 가족들 때문이에요. 이제 취직해서 언제 장가 갈래부터 시작되는 대화가 불편해 죽겠습니다. 내 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집안에 취업준비생만 3명인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걸까요? 개들보다는 내가 먼저, 더 좋은데 취직할 것 같은데. 취직만 해봐 아주 약 올려줄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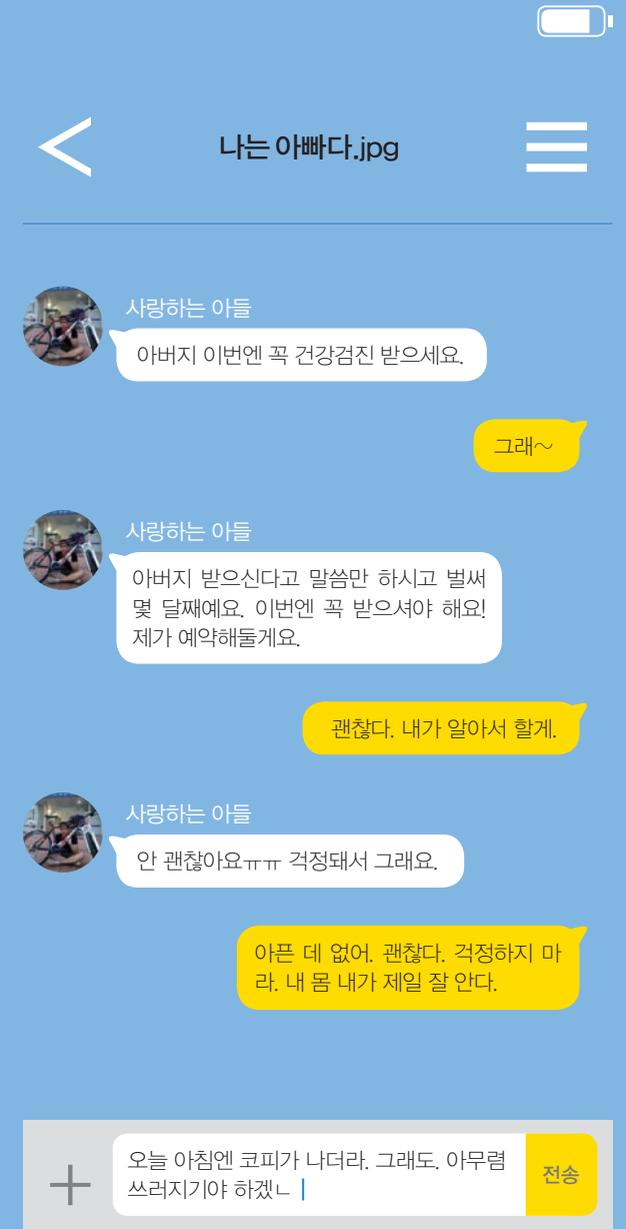
아침부터 와이프와 장모님 손에 이끌려 백화점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제 선선해지는데 가을옷이 없으시다더군요. 여성 의류 매장을 돌며 옷을 꺼내보고 입어보기를 네 시간. 저에게 남은 건 양손에 들린 쇼핑백과 카드 사용 내역 문자뿐이네요. 뭐 매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폭풍이 지나가면 그달은 적금 넣기도 빠듯합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할 수 있을는지, 그래도 당분간은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겠지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비밀입니다. 아시면 등짝 맞을 것 같거든요. 하하.



벌써 세 번째 냉채족발 회식입니다. 못 먹는 메뉴도 몇 없는데 하필이면 부장님이 냉채족발 킬러라서... 나는 서비스로 나오는 막국수만 먹고 오지요. 어차피 부장님이 "냉채족발~!"이라고 외치면 우리는 따라가는 건데 뭐. 예전에 냉채족발 못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막내 직원 음식 취향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언제쯤 냉채족발 회식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나. 회식 일찍 끝나면 집에 가서 라면에 치즈 넣어서 끓여 먹어야지~ 고칼로리로 먹어주마!!



휴. 진짜 오랜만에 군대 동기 만나는 건데 하필 오늘 야근하라는 통보입니다. 퇴근 한 시간 전에 떨어진 명령. 오늘은 갑퇴하려나 싶어 웬지 설레더구만 그럼 그렇지. 프로젝트 마무리 지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과장님은 왜 갑자기 보채시는 건지. 혹시 퇴근에 들떠있는 거 눈치채고 일거리 던져주는 건가. 3주 전에 잡은 약속인데 짜증이 올라온다. 왜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를 떠나질 못하니! 어쩐지 오늘은 여유가 있던 게 운수가 좋더라니만!



며칠 전부터 속이 안 좋긴 했습니다. 젊었을 땐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일했는데 나이가 드니 점점 힘에 부치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야죠. 어서 예쁜 며느리가 들어와 우리 집안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나는 시간들 돌아보며 편안하게 지내야지요. 🇰🇷

세련되고 진솔하게 건네는 거절의 한마디

“나는 보험을 스무 개쯤 든 것 같아. 어떤 걸 들었는지도 몰라서 보험금이나 제대로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보험이 그렇게 필요냐고 물었다. 김 부장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부탁하는 걸 거절할 수 없어서 하나씩 들어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큰일 나면 로또 타시겠어요” 하니, 중복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많아 큰 사고가 나도 결국 별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괴감이 들더라. 어디 보험뿐이라, 그는 젊은 시절 동료들의 부탁에 주말 당직을 수도 없이 섰다. 아빠와 나들이를 계획하던 식구들은 계획을 취소하거나 아빠 없이 나들이에 나섰다. 부서장이 되니 더 힘들어졌다. 인력 부족에 허덕이지만 늘 새 인력을 데리고 오는데 경쟁부서에 밀리고,윗사람의 지시를 다 따르다 보니 부서 고유의 일이 우선순위에 밀리기까지 한다.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 자괴감으로 이어지기 쉽다. “오늘 또 당했다”는 생각에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거절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한다. 또 거절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가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거절하기를 어려워할까? 대부분 상대방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은데, 성장 과정에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제하다가 그대로 자란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말을 거슬렀을 때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련되게 거절하는 기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김 부장처럼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배우자나 자녀 혹은 그 외 가족들에게 가혹한 경우가 허다하다. 동료의 주말 공연 데이트를 위해 아이들과 한 달을 계획한 나들이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남과 나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거절을 통해 자신과 외부와의 경계를 만들어 간다. 거절을 하고 못하고는 단순히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의 유무다. 그럼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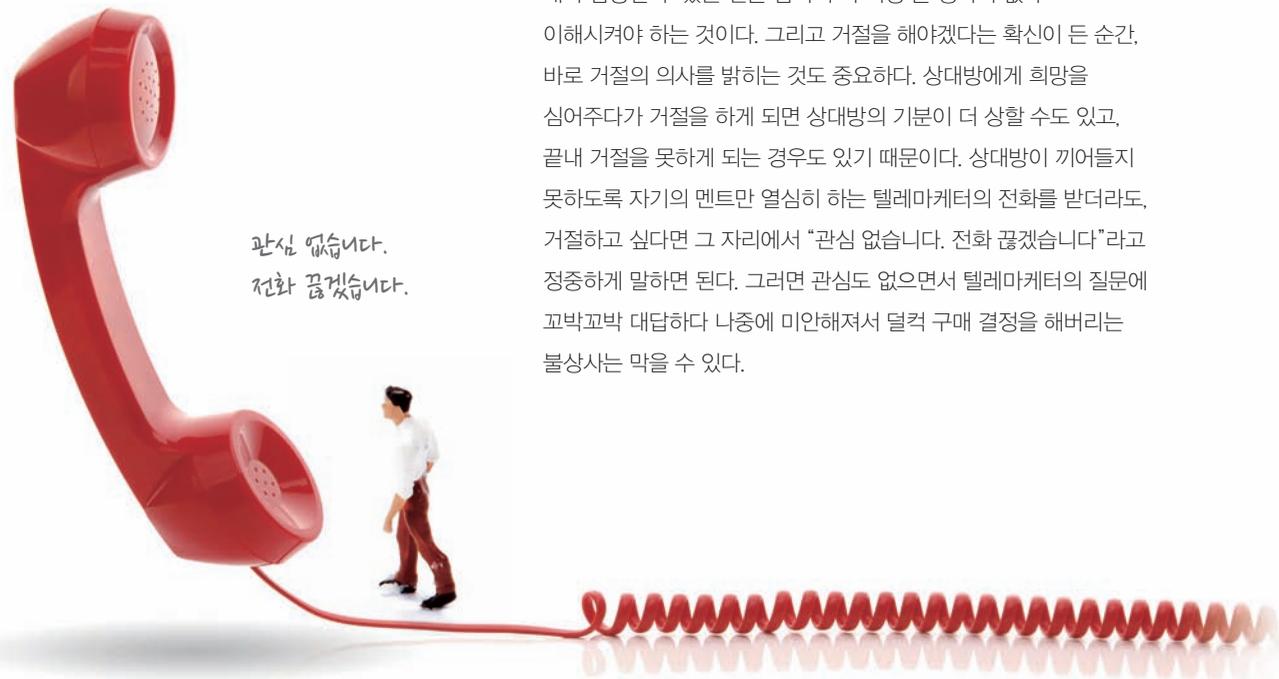
“ 거절이 결코 배신이나 배반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보험을 안 드는 것이지, 상대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부탁의 상당 부분은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이 두 쪽 나거나 상대방에게 심한 데미지가 가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김 부장이 당직을 대신 서주어서 주말 데이트를 간 사람은 김 부장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다른 날 공연을 보러 갔을 수도 있다. 그의 데이트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가족의 주말을 망쳐야 하는가? 물론 내가 부탁을 들어줬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한다면 마음이 누그러질 수는 있다. 그러나 간혹 남에 대한 배려와 공감 없이 자신의 작은 불편 해소나 이익을 위해 습관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 못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 거절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세련되게 거절하라.”

거절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지금 부탁에 한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좋다. 때로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나에게 유사한 보험이 있고, 보험료 부담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더 이상 들 생각이 없다”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절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든 순간, 바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희망을 심어주다가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이 더 상할 수도 있고, 끝내 거절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자기의 멘트만 열심히 하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더라도, 거절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관심 없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면 된다. 그러면 관심도 없으면서 텔레마케터의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하다 나중에 미안해져서 덜컥 구매 결정을 해버리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 거절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상대방이 어렵게 부탁을 했거나 너무 가까운 사람일 때 등 거절하기 힘든 경우에는 더욱. 이때는 내가 하는 거절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본인의 감정까지 말해주는 것이 좋다. 새로 생긴 여자친구와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다며 주말 당직을 바꿔 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렵다. 워낙 가깝게 지내온 노총각 동료에게 아버로서 아이들과 놀러 간다고 이야기하기가 왠지 미안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럴 때 도움이 되어 주고 싶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실망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나 난감하다. 너도 나를 이해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 어떨겠냐”라고 자신의 상황을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에는 어렵지만 다음에는 나에게 먼저 물어봐 달라” 등의 다른 제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마지막으로 거절을 하고, 혹은 못하고 나서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평소 거절을 못하다가 거절을 하고 나서 시원한 감정을 느낀다면 다음에는 더욱 적절히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거절을 못하고 나서의 감정이 어떤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세련되게 거절했을 때 드는 감정과 결과를 비교해 보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거절을 못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을 제대로 관찰하다 보면 거절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도, 거절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적절한 거절'은 꼭 필요하다



거절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경계가 있게 마련인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 경계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거절'이 꼭 필요한 이유다. 🇸🇰

어느 날, 괜찮은 것들의 속마음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나는 **빨** **간** **불** 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신호가 왜 이렇게 길어?'

'아 지루해. 빨리 좀 바뀌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를 향해 찡그리는 사람들.

내가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잔걸음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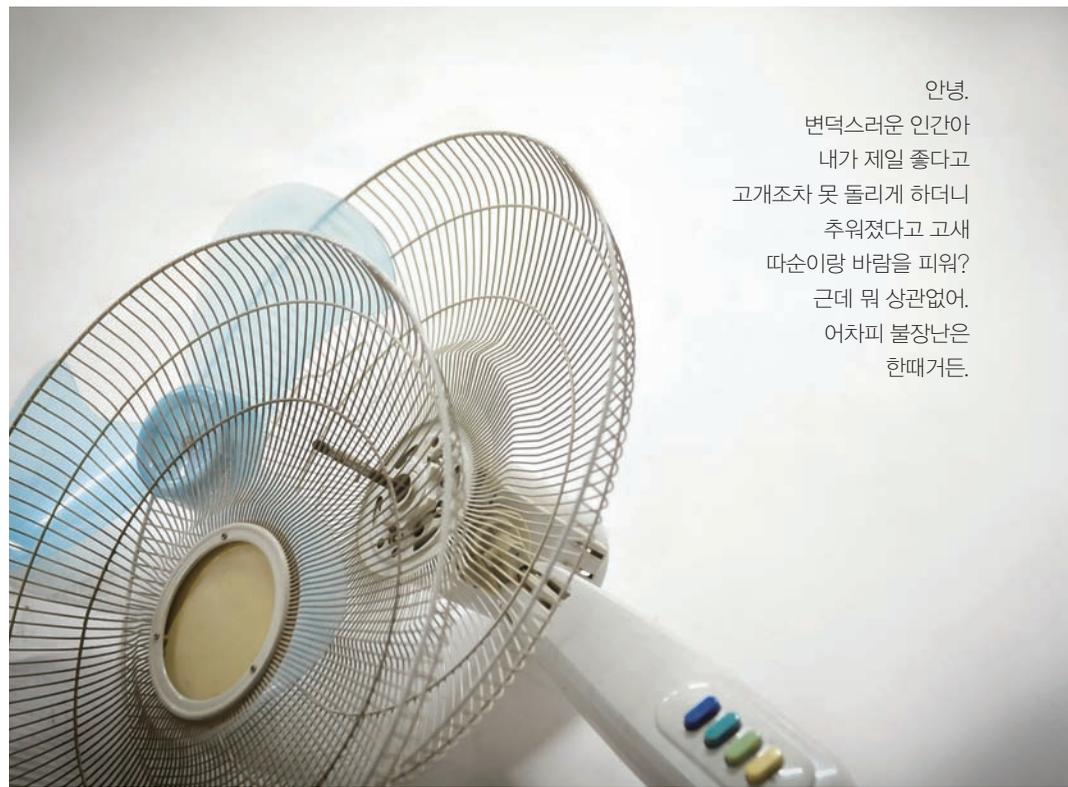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있어야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할머니가 잠시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실 수 있잖아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나는 **선** **풍** **기** 입니다



안녕.
변덕스러운 인간아
내가 제일 좋다고
고개조차 못 돌리게 하더니
추워졌다고 고사
따순이랑 바람을 피워?
근데 뭐 상관없어.
어차피 불장난은
한때거든.

축 처진 어깨를 가진

나는 **옷** **걸** **이** 입니다

얇고 가늘어 등직한 어깨는 아니지만
온 힘을 다해 버텨보겠습니다.
나에게 걸린 당신이 빛날 수만 있다면
이까짓 고생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희 아빠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던 시절.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나 하나면 공책 한 권, 연필 두 자루,
큼지막한 눈깔사탕 두 개도 살 수
있었다고! 어쩌다 길에서 나를
발견하는 날이면 그날은 완전
운수대통이었지.
지금도 잘 생각해봐.
만약 슈퍼에서 비닐봉지가
꼭 필요한데 만 원짜리 밖에
없으면 어떡할래?
아마 내 생각이 간절할걸?
그런데 가만있어봐.
나 지금 여기 몇 시간째 있는 거니?

지나간 과거의 영광

나는 10 원 짜 리 입니다



30년째 같은 자리

나는 우 체 통 입니다



쌀집 처녀가 군대 간 애인에게
수줍은 마음을 담아 연서를 쓰던 날.
파란 대문 집 여고생이 부모님 몰래
조용필 오빠에게 팬레터를 보내던 날.
나는 아직도 그날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소식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추억을 그대로 안고
아직 이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다. 🇰🇷

— 나도 여친이 있었으면 좋겠다

●
●
●



한 여자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키도 크고 매너도 좋은 이 남자들은 어디가 부족해서 제 짝도 못찾고 있는 걸까? 연애 세포가 아예 죽은 걸까? 일방통행 사랑을 넘어 이제는 진지한 만남으로 자신들의 반쪽을 찾겠다는 멋진 싱글남 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이상형을 찾아서 Go Go!



Cooperation 바로연(1544-5008)

화승 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화승인더스트리 가공연구팀 장윤재 사우와 통기성팀 박준범 사우. 이들은 화승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섬 프로젝트에 당첨된 주인공들이다. 섬 프로젝트는 인연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매우 강한 화승인들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반쪽을 찾아줄 거라는 일념 아래 한 결혼정보업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공지되었을 때 오늘의 주인공들보다 더 강렬히 원하는 이가 있었다고 한다. 그 사우의 선동(?)이 장윤재, 박준범 두 남자의 마음에 제대로 불을 지폈다. 그러나 제일 열망이 강했던 그 사우는 엄격한 심사 속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한편으로 미안하지만 그보다 앞으로 다가올 소중한 인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멋진 두 킹카는 연신 싱글병글이다.

화려한 솔로 2인방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그들을 만났다. 큰 키, 날카로운 턱선, 부드러운 미소, 누가 봐도 '어? 멀쩡한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 터. 성격이 이상한 걸까?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대뜸 물었다. "장윤재 씨, 마지막으로 연애한 적이 언제예요?" "그게...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석사 과정을 준비하느라 여자 친구에게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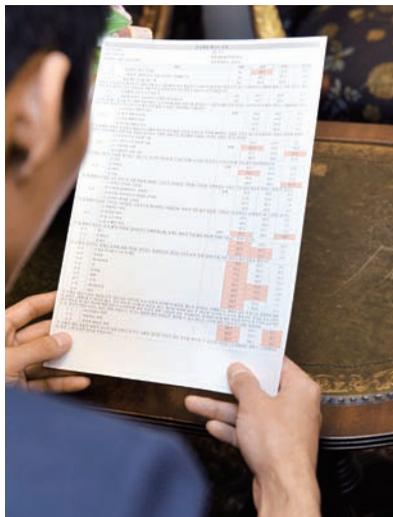
“박준범 씨는 키도 크고 매력도 있으신데 왜 지금 솔로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유학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마다 사연이 있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이다.
 남의 아픈 과거를 더 이상 콕콕 파헤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오늘처럼 좋은 날, 애써 '씩소' 짓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싫었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오늘 충남 아산에서 서울까지 상경했다.
 사랑의 아픔을 딛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이상형은 과연, 누구?

화승 쌤남 장운재, 박준범 사우의 기본 프로필을 미리 업체에 보내놓은 상태였다.
 각각 담당 커플매니저들이 이들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어떤 여성들이 그들과 어울릴까? 그들은 어떤 이상형을 그리며 찾고 있을까?
 나름대로 화승그룹 자체에서 까다로운 심사 속에 선발된 남자들인지라 상담은
 수월하게 이뤄졌다. 혹시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내비치진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한 시간이 넘는 커플매니저와의 상담은 완전 대만족.
 “모두 잘 될 것 같은데요? 이성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은 유머입니다.
 두 분은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매너도 좋으세요, 여자분들한테 정말 인기 많으시겠어요~”
 임은주 커플매니저 역시 무조건 잘 될 것 같라며 호언장담을 했다. 상담에 이어 뇌파
 분석을 통해 이상형을 찾는 바로파인드(Baro-Find)과정이 이어졌다.
 상대방의 외모, 호감도, 음악, 성향 등에 반응하는 뇌파를 측정하여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알맞은 상대를 연결시켜주는 감성 매칭 시스템이다. 뇌파 분석을 토대로
 얻어진 객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던 이상형과 취향에 대한
 확실한 선호도를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아픈 과거는 묻지 말자.
 두 사람은 사랑의 아픔을
 딛고 다시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자 한다.



두 사람, 과연 장가갈 수 있을까?
 최종 속제는 본인들에게 맡긴다.
 성공적인 쌤 프로젝트를 기원하며!

쌤남, 쌤녀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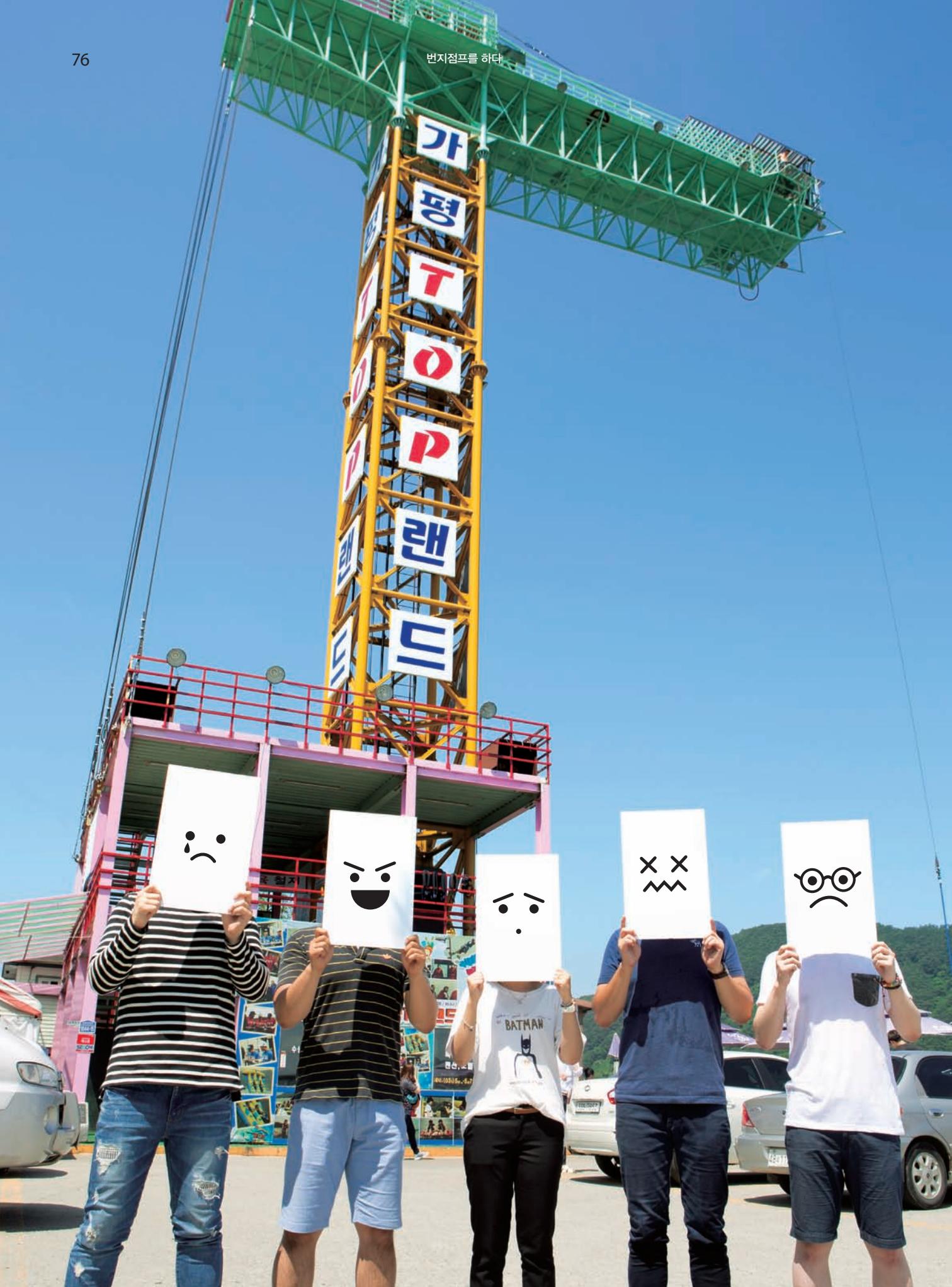
사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두 사람이 여성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매력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걱정은 이내 기우로 바뀌었다.
 해 질 녘, 한 카페의 조용한 음악 속에서 쌤남쌤녀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색할 법한 분위기는 한바탕 웃음으로 훈훈하게 데워졌다. 밝은 표정과 분위기
 속에 어느덧 해는 산등성이를 넘어 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결혼정보업체는 결혼 못 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곳이 아닐까하는 편견도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보다 나은 짝을, 보다 빨리 찾아 사랑할 시간을 늘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스치지만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힘들다. 회사 일과 스펙 쌓기 등으로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도 나에게 맞는 짝을
 만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는 이들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아닐까.
 문득 커피소년의 〈장가갈 수 있을까〉라는 음악이 생각났다. 화승인더스트리의 장운재,
 박준범 사우. 과연 장가갈 수 있을까? 최종 속제는 본인들에게 맡기며 우리는 그렇게
 돌아섰다. 뜨거운 햇볕만큼이나 이글거리는 그들의 열정으로 열린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바로연에서 이상형을 만나세요!

10월 11일(토) 재만혼 미팅파티
 장소 : 리베라 호텔, 인원: 15쌍
 참가대상 : 40~55세 남성, 39~52세 여성
 (재혼, 만혼)

10월 18일(토) 와인파티
 장소 : 임패리얼팰리스 지하층 조이바
 인원 : 15쌍
 참가대상 : 28~38세 남성, 26~33세 여성(초혼)
 연령, 이름, 성별, 연락처, 최종학력 입력 후
 kjh@baroyeon.co.kr로 신청해주세요!



‘안 괜찮은’ 화승인들의 번지점프 도전기

뛰어야 산다!

“끼아아아악~ 우와아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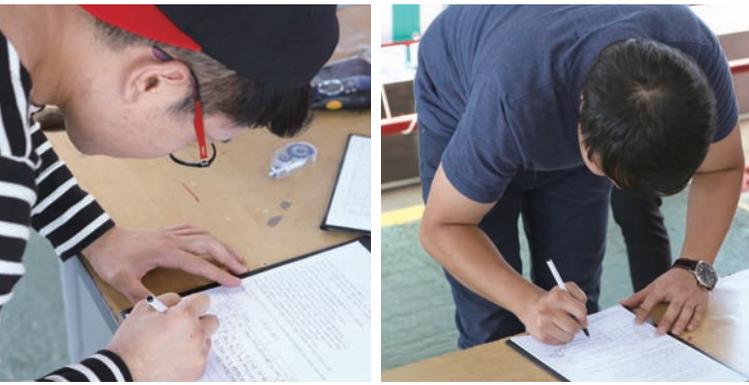
하늘 저편에서 사람들의 시원한 외침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때론 환희의 함성으로, 때론 공포의 울부짖음으로 메아리치는 이곳은 경기도 가평의 번지점프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섯 명의 화승인은 앞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본인들 앞에 펼쳐질 어메이징한 1분에 가슴 졸이고 있다. 이들은 왜 번지점프대 앞에 서게 된 것일까?

“어려서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포스가 심상치 않다. 남자다움을 물씬 풍기며 다가오던 김대호 사원. 아니나 다를까 공수부대를 꿈꿨던 사나이란다. 라섹 수술까지 받아가며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지만 섬 지역으로 배치 받는 바람에 결국 공수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던 그가 드디어 오늘 가평 번지점프대에서 하늘을 나는 꿈을 이뤘다. 카운트를 세고 발이 떨어진 순간, 세상을 향해 힘찬 날개를 펼친 듯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버킷리스트 실천에 도전하겠다는 김대호 사원은 동료들에게 돌아가 번지점프를 하며 얻은 뜨거운 에너지를 푹푹 전달했다고 한다.

화승인더스트리 소재연구팀 김대호 사원





Cooperation 가평탐랜드



“고소공포증이 있는 내가 과연 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상에도 은근 영향을 주는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했다는 이영섭 사원은 자신의 처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말이 없어졌다. 뛰기 직전, 번지점프대 앞에 선 것을 후회하며 포기를 고민하던 중 안전요원에게 슬쩍 등 떠밀려 번지 성공! 하지만 고소공포증 극복은 실패. 땅을 밟는 순간까지도 괜히 뛰었다며 후회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뿌듯했다고. 뭐, 다시 뛰라고 한다면 거절할 예정이지만.

화승공조 물류지원파트 이영섭 사원

“선배가 저보고 소심하다며 힘껏 뛰고 오래요”

목소리의 크기가 남들보다 작다. 회사에서도 소심함의 결정체라 불리는 도지에 사원은 선배의 권유로 번지점프에 도전했다. 의외로 점프대 끝에 담담히 선 그녀가 뛰어내린 순간, 아니나 다를까 가평 일대가 날카로운 비명으로 가득 찼다. 번지포프의 출렁거림이 끝나고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이지 않던 이 비명만큼은 소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번지점프 한 번으로 성격을 어떻게 개조하겠는가. 하지만 번지의 순간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이다. 화승T&C 관리팀 도지에 사원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많아 모두 털어 버릴 계기가 필요했다는 이현욱 계장은 번지점프대에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녹록지 않은 사회생활로 스트레스 가득한 이 계장의 눈이 번뜩였다. 이번 번지점프로 힘겨웠던 시간을 다 날려 보내겠다는 불꽃 같은 의지가 엿보인다.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쿵광거리는 가슴, 점프 순간에 느낀 엄청난 속도감에 머릿속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훌훌 털려 나가는 기분이었던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법,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이번 번지점프는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할 이 계장의 값진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화승인더스트리 선행개발팀 이현욱 계장

“새로운 팀에서 당당한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입사 초기의 잦은 실수로 자신감을 잃고 점차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박태관 대리. 오랜 시간을 막내로 보내왔지만 새롭게 옮긴 부품품질확보팀에선 대리로서 팀장님과 후배들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수 잦던 막내에서 당당한 선배로의 변신. 그 출발을 알리는 안전요원의 신호가 들린다. “3, 2, 1 번지!” 힘찬 발돋움과 함께 팔을 쪽 뻗어 바람을 가르며 낙하한 박 대리는 승리의 V로 기분 좋은 자신감을 보이며 당당한 선배로 레벨업 했다. 화승R&A 부품품질확보팀 박태관 대리



괜찮을 거예요

Everything is alright.



다잘 될 거니까요.
그런 당신을
응원하니까요.
당신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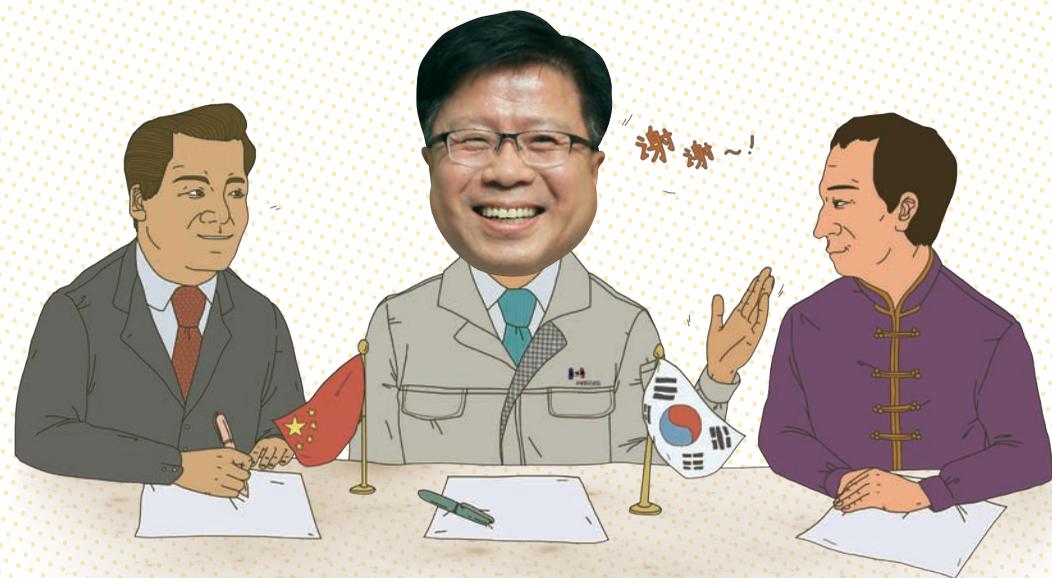
화승기차배건유한공사(HST) 김승희 법인장

중국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자

김승희 상무는 1988년 동양화공(현, 화승R&A)에 입사해 사나흘 밤 새우는 것이 기본이었던 때가 엇그제인 것만 같다. 그가 처음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은 2008년은 회사가 유독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중국 시장 내 관공서에서의 행정적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매출은 줄고 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호주와 미국 협력사에 제품 수출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하나 된 직원들과 불철주야 노력한 그의 뜻으로 다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화승만의 노하우로 중국 시장 내에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다. 실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의 반복은 없다.

소탈한 성격과 권위 없는 동네 아저씨 같은 김승희 상무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회의를 하고 있다. 팀장급 이상의 한국 주재원들이 중국어로 회의를 준비해 중국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물론 완벽하지 못한 중국어로 회의는 이내 웃음바다가 되지만 중국인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한 그만의 '눈높이 경영'인 셈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원하는지도 모르던 시절부터 오늘까지, 26년 하고도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니 화승은 김승희 상무에게 전부였다. 물질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화승이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갈 것이라는 그에게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화승기차배건유한공사(HST)를 기대해 본다.



화승태양능재료유한공사(HSP) 김병준 법인장

화승으로 인해 청춘을 돌려받다



무게 중심은 상체 복부에 있고 뒷짐을 진, 말수 없는 임원을 상상했던 김병준 이사는 달랐다. 그가 소탈한 유머로 직원들과 함께 격의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건 늘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 애쓰는 덕분이다. 그에게도 '진짜 젊었던 날'은 있었다.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12월 14일 화승인터스트리 공채 3기로 입사한 그는 천안 아산에서의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성실'을 기슭에 새긴 채로 쉽 없이 달려왔다. 파란만장한 화승 라이프를 살아온 그인지라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제법 있다. 중국 법인 설립 초창기, 업무차 들린 상해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택시를 탔을 때였다.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가까이 우회하는 택시 안에서 연신 "뺍(Back)! 뺍(Back)!"만 외쳤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엔 심각했다. 그만큼 언어의

장벽이 컸다는 이야기다. 그런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성공의 조건, '성실' 하나로 기본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실함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오기에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신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김병준 이사. 그런 그가 이끌고 있어 화승태양능재료(태창)유한공사(HSP)가 감 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리라. 그는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친 화승이, 이제는 되려 자신에게 청춘을 돌려주고 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장, 화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둔 김병준 이사는 오늘도 나이를 잊고 누구보다 제대로 청춘을 즐긴다. 🇰🇷🇨🇳



프롬더박스

잘생긴 인디서점



책도, 그림도, 사진도 흔하지 않은 것들 일색인 곳.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프롬더박스는 '인디'마저 품은 작고도 큰 서점이다. 아날로그 감성 가득한 이 공간에서 낯선 손님을 맞이하는 박성진, 천지원 씨. 젊은 그들이 세상의 뻘한 공식을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필, 부산에?

벽에 걸린 꾸밈없이 진솔한 그림처럼, 진열대의 풍경 사진처럼 순수해 보이는 남자와 여자. 꽤 오랜 시간 함께 아트워크를 해온 두 사람이 이 공간의 주인이다. 이들은 어느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 출판물을 비롯한 각종 매거진 및 단행본, 문구류 등 아담한 규모에 비해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는 중이다. 럭셔리하진 않지만 예사롭지도 않은, 방문객의 영감을 자극하는 프롬더박스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문득 궁금해졌다. “서점을 오픈하는 것이 저희 첫 목표는 아니었어요. 직접 디자인을 하고 판매도 하는 아틀리에를 염두에 두었죠. 그렇게 작업을 해왔고, 결국 책에 대한 열정으로 서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어지간히 좋아하지 않고서야 선택 나서기 쉽지 않다는 독립출판물 시장에 딱하니 발부터 내딛고 본 프롬더박스. 그리곤 아무렇지도 않게 쑥- 뿌리를 내려버린 젊은 독심. 왜 하필 부산이었을까?

80년대 후반, 서울 을지로에서 마포로 인쇄업자와 출판사가 대거 이동했고, 주변지역인 홍대 특유의 정서가 반영되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인디서점도 그중 하나. 언제부터 이런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의 문화를 말하는 것인 양 인식되어버린 걸까. 향구리는 지리적인 요건 덕에 해외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곳이 부산 아니었던가. 그러나 롤모델이 없는 부산에서 인디서점을 시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인디영화, 인디밴드, 인디출판... 인디의 시작은 늘 외로운 법이니까. “왜 부산에 자리 잡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디출판을 사랑하는 운영자가 부산 사람인데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할까요?(웃음)” 듣고 보니 그렇다. 인디가 뭐 서울의 전유물이라도 되나? 그래서 크게 말해주고 싶다. 잘 생겼다고! 생겨줘서 고맙다고!



프롬더복스가 부산에서 문을 연 이유는 단 하나. 운영자가 부산에 사는 부산 사람이니까.



‘케미’ 터지는 환상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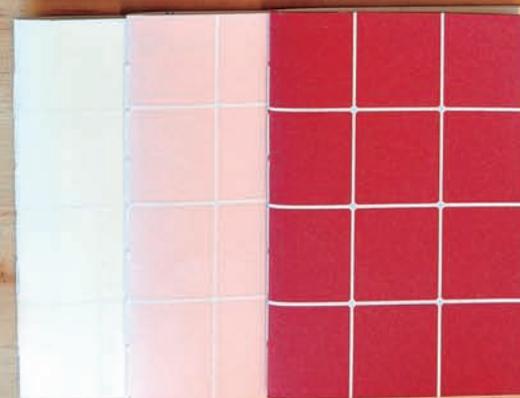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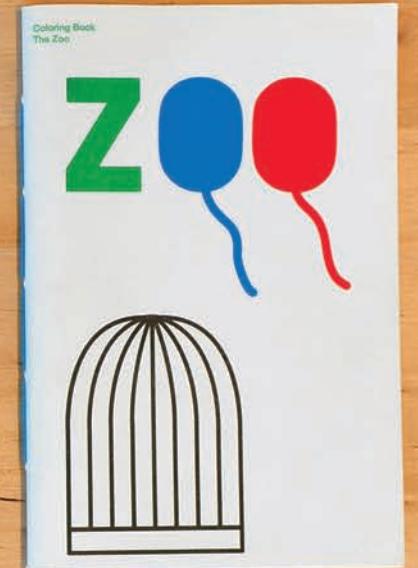
사실 서점 수익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울 터, 때문에 이들에겐 다른 일거리도 제법 많다. 운영자로서 수익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고민으로 여긴다는 지원 씨의 담담한 고백에 성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다 “서점 한켠에 의뢰받은 디자인을 하는 작업실이 따로 있다”며 한마디 보탠다. 눈빛만 봐도 딱딱! 주머니 받거나 합이 잘 맞는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작업하며 손발을 맞춰왔다. 일은 일단 터뜨리고 보는 거라는 성진 씨의 추진력과 후폭풍 잠재우기 전문가인 지원 씨의 세심함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업무적 딜(deal)이 필요할 땐 성진 씨가, 부드러운 친화력으로 방문객을 리드해야 하는 서점 업무엔 지원 씨가 수완을 발휘한다.

이렇게 두 사람만으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에 인원을 더 늘리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겠다는 욕심이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의도된 바는 아닐지라도 흥미진진한 일들을 꽤 많이 벌여왔다. 홍대 앞 대표 인디서점 ‘유어마인드’와 연계한 필름상영을 비롯해 인디밴드인 ‘아카시아’, ‘부산아들’의 공연들 모두가 프롬더복스의 공간을 통해 이뤄진 문화이벤트들이다. 또한 일반인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책 만들기 비법도 전수하고, 전문교육과정이라면 배우기 힘든 실크스크린 강의도 하는가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생대회 주관까지. 과연 아날로그 감성과 종이책을 좋아하지만 전자책도 즐기고, SNS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진화된 아날로그 디자이너들답다.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무릇 디자이너라면 좋아하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예술가 한 명쯤은 있을 거다. 이들이 대학 시절부터 닮고 싶은 예술가로 꼽아온 인물은 바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그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예술의 대량복제에 반발하듯 수작업을 중요시한 영국의 디자이너이자 시인, 건축가다. 윌리엄 모리스가 사회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준 것처럼,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프롬더복스만의 감성도 더 단단히, 멀리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아날로그의 손맛이 듬뿍 담긴 팬시 브랜드 ‘그린그림(rgm)’을 런칭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판매율이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서 책방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간혹 참고서 있느냐는 전화문의에 상처받는다든 이 순수청년들이, 대견하고 부럽기만 하다. 시작은 네 명이었지만 직장 찾아 하나, 둘 떠나면서 남겨졌던 두 사람. “서 있는 곳도 부산이고 바라보는 미래도 부산”이라 말하는 두 얼굴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보인다. 부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조금씩 더 꿈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





화승R&A 설비지원1팀 김지은

관심은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취미가 있다



경남에서 소위 '날고 긴다' 하는 아마추어 복싱 선수들은 다 모인 이곳. 이미 경기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기다린다. 저기 멀리서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사뿐사뿐 다가오는 그녀. 헉! 저 조각만 한 얼굴. 여러여리한 몸매의 소유자가 킥복싱 선수라니... 이렇게 관심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주먹을 휘두르는 걸로 모자라 니킥으로 상대를 때려눕힌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그녀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다.

청순녀의 역습, 거침없이 털털함

협력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화승 입사의 꿈을 키워온 김지은 사우. 그녀는 화승에 처음 면접 보러 왔던 날을 기억한다. “활동적인 성향과 잘 맞는 현장직을 원한다”며 면접관에게 소신껏 어필했다. 돌이켜보면 참 잘한 일이다. 소원대로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입은 지 꼭 찬 3년이 된 그녀는 현재 화승R&A 설비지원1팀에서 털털한 성격에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하는 직원으로 통한다. 그녀가 속해있는 설비지원1팀은 각 현장 설비를 지원하고, 자재 관리부터 직원들의 인사·근퇴까지 담당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바쁘다. 그런 와중에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청순한 외모에 “오리 오리~!”를 외치며 김보성 코스프레를 해대는 김지은 사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팀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녀가, 오늘은 싸움 아닌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 양산시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복싱대회에 출전해 한껏 기량을 뽐내 줄 예정인 것.



킥복싱을 하면서
10kg 정도 빠졌어요.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내는 것 자체가
행복하답니다.



본래 김지은 사우는 빈혈이 있을 정도로 체력이 약한 편이었다. 체력 증진을 목표로 제일 처음 시작한 운동이 헬스. 주구장창 혼자 달리기만 하는 러닝머신 위주의 운동이 통통 튀는 그녀와 맞을 리 없었다. 그렇게 운동 자체에 심드렁해졌을 그 무렵, 친구가 추천해준 킥복싱에 완전히 '취향 저격'을 당했다.

킥복싱 하나면 다 괜찮아진다니까

킥복싱, 과격함과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운동이 아니던가. 제 아무리 좋아서 시작했다지만 여자의 몸으로 기술을 익히며 힘든 점도 많았을 테다. “매 순간이 고비예요. 뛰고, 킥을 차고, 주먹을 쓰고... 그러다 흔들리면 다시 자세를 바로 잡고요.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해도 옆에서 관장님이 ‘쉬지 말고 계속하라’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해야 되니 너무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는 마찬가지. 특히 어머니는 딸이 골병이나 들진 않을까, 상처가

흉터로 남진 않을까 늘 전전긍긍이시란다. 온몸에 멍투성이인 그녀는 연습 도중 타이어에 발이 찍혀 곱스를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도 “그래도 크게 다친 적은 없다”며 씩씩 웃어 보였다. (무섭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다이어트 했냐고 물어볼 때마다 꽤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킥복싱을 하면서 10kg 정도 빠졌어요. 무엇보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내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운동을 하고 땀에 흠뻑 젖으면 벽찬 희열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김지은 사우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많으면 5번씩 뺏길나게 체육관을 드나드는 이유다. 가끔 귀찮아서 가지 않은 날엔 자려고 누우면 후회가 밀려온다고.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되는 날엔 무조건 가는 것이 그녀만의 룰. 이토록 순수한 열정으로 킥복싱을 즐기는 사람에게 멍 따위, 코피 따위가 무슨 문제일까.



‘레알 파이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오늘은 그녀 생애 두 번째 경기 출전이다. 지난 6월 7일, 이미 대전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상황. 실력테스트나 한 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나갔건만 보기 좋게 두들겨 맞고 왔었다. 코피까지 터지는 굴욕을 딛고 이번 기회에 꼭 진짜 실력을 꼭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조건 초반부터 밀어붙일 겁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지나친 계산과 탐색은 공격 기회를 스스로 봉쇄할 수도 있어요. 또 한 번 맞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서 뒤로 밀리며 더 맞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꼭 이기고 말 거예요!” 그녀가 드디어 링 위에 올라섰다. 1라운드 시작부터 킥으로 상대의 복부를 타격하더니, 어느새 스트레이트를 연타로 날리며 활활 날아다닌다. 경기 내내 상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 덕분일까. 10초, 30초, 1분... 억 만 겹의 시간 같은 3분이 지나고 승리의 여신이 우릴 향해 웃었다. 아자! 내심 김지은 사우의 승리를 점쳤더랬다. 맞아도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더 큰 펀치로 응수할 것 같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괜찮다”며 극복해내고야 말 것 같은 그녀였기에. 🇰🇷

우리, 함께 들을까?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도는 노래가 있다.
슬플 때 들으면 기분이 풀리고, 기쁠 땐 기쁨이 훨씬 더해지는 그런 노래.
늘 곁에서 깊은 위안과 긍정의 힘이 되어주는 내 인생의 메인 OST, 같이 들어볼래?

- Track 01. 내일의 축구왕 : Cryim
- Track 02. 금요일에 만나요 : 아이유
- Track 03. 너의 의미 : 산울림
- Track 04. 수고했어, 오늘도 : 옥상달빛
- Track 05. 8:45 Heaven : 드림큰대

내일의 축구왕

Cryim

내일의 축구왕 오늘은 벤치신세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한두 번도 아닌데 신발끈 다시 묶고
 내일의 축구왕
 드디어 기회가 왔어 오늘은 반드시 해낼 거야
 호흡을 가다듬고 태양을 향해 강슛

내일의 축구왕 감독님의
 한마디 이 녀석 정신차려
 해는 뉘엿뉘엿 골대로 들어가
 내게 윈크하네
 밤늦은 여행길 외롭고 지쳐가도
 내일의 축구왕
 세상이 무너져도 다시 달려간다
 내일의 축구왕



회승공조 관리팀 이해경 사원

올해 5월 전주 한옥마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상을 떠나 낯선 곳에서 우연히 듣게 된 Cryim 밴드의 <내일은 축구왕>. 살짝 허름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지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슈퍼스타는 아니더라도 내일의 밴드왕을 꿈꾸며 열심히 뛰는 이들의 모습에 짙한 감동이 밀려오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 노래를 들으면 내일이라는 희망, 그리고 소박한 꿈을 가진 소년이 떠올라 긍정의 힘이 샘솟아나요.



금요일에 만나요

아이유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이 달려라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일본 일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곤 못 배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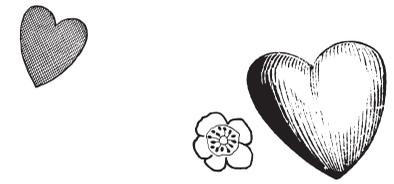
화승네트웍스 통합구매팀
 채종민 사원
 언젠가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동생을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었죠.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듣게 된 이 노래.
 그날은 설렘 가득한 하루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지금도
 금요일이면 약속이 없더라도
 왠지모를 설렘이 느껴지네요



너의 의미

산울림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너 향해 창을 내리 바람드는 창을



화승R&A 기획팀 박재우 대리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가사
 때문일까요. 산울림 노래는
 예전부터 자주 들곤 했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며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가 어느덧 제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가사 그대로 사랑하는
 와이프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두는 제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의미>는 풋사랑에
 마음 설레던 오래전 그날의 감성을
 자극하는 곡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달빛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 하늘만 바라봐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화승T&CSL생산팀 이상희 사원

대한민국 고3 학생들만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들이 있을까요. 물론 누구나 서로 다른 이유들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겠지만 유독 그때가 기억에 남네요. 공부에 한참 지쳐있을 고 3때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듣게 된 노래입니다. 제목만 봐도 토닥토닥 위로를 받는듯했습니다.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듣고 있어요. 꼭 누군가가 "수고했어, 상희야!"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거든요.

8:45 Heaven

드렁큰 타이거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평온한 세계로
 8:45 그대는 하늘나라로
 내 목소리가 들린다면 know that I love you
 있을 때 잘할 걸 들릴 때 외칠 걸
 얼마나 내가 그댈 사랑한다고
 대답 없는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혹시 크게 외치면 들릴까 소리 질러봐



화승엑스월관리파트 김태형 사원

가수 타이거 JK가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간을 제목으로 한 곡입니다. 가사에서 보여지듯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손자의 마음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제 MP3 1번 트랙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명절에 세배를 드리면 늘 세벳돈과 양갱을 같이 주셨던,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를 생각하게 한답니다. 🇰🇷



벗고 싶다,
이놈의 안경!

날마다 벗는 남자.

마지막 벗던 날.

날마다, 수시로 벗었다. 지긋지긋한 안경이라는 굴레. 7년간 축구를 하면서 대체 몇 개의 안경을 깨뜨렸는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그러다 자전거를 시작했다. 수영에, 마라톤까지 이 모든 걸 다 마스터하면 이제 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수시로 벗겨지는 안경은 어쩐다. 나는 꼭 도전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 어디 없나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 불편해!

입사와 함께 축구 7년째. 수비 포지션인 화승T&C FL생산팀 이보영 사우의 안경은 매번 운명을 맞이했다. 그럴 때마다 와이프는 축구를 때려치우라 다그치고 다그쳤다. 7년 축구 사랑에 한 눈 팔 때가 온 건가? 자전거 라이딩에 꼭 빠져 살다 최근엔 수영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자전거도, 수영도 안경은 쥐약. 설상가상으로 그는 마라톤 영역에까지 세 눈을 팔게 된다.

불쑥 찾아온 기회, 무작정 돌진!

직원 1명의 무료 라식 수술을 제공한다는 그룹사보 공지를 본 건 접수 기간이 무척이나 임박한 순간이었다. 헉! 퇴근과 동시에 폭풍 사연 작성에 돌입!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관리팀을 찾았다. "꼭 라식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간절함은 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법. 화승 사람 최초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런닝맨이 되고 싶다는 이보영 사우의 간절함은 사보 편집실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의 수혜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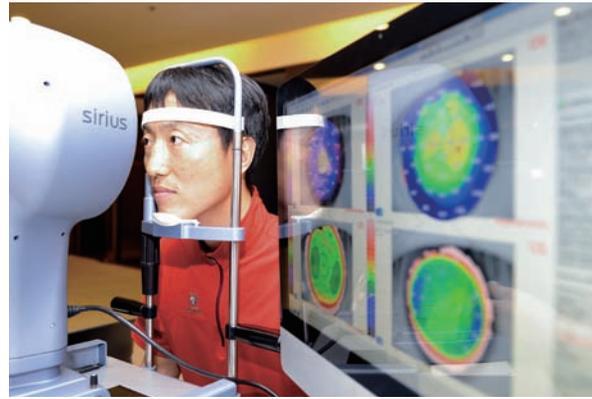
화승의 눈 주치의, 부산 서면 아이시티 안과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고 했던가. 난무하는 공장형 라식 수술 병원의 무림 속에서도 하루 20명 이상의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 우선 병원, 부산 서면 아이시티 안과. 화승그룹과는 이미 임직원 제휴를 통해 수많은 화승 사람들의 눈을 밝혔다. 50여 가지가 넘는 정밀 검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수술 방식으로 담당의가 직접 진행하는 아이시티 안과는 최근 역대 최고 레이저 장비인 아마리스 1050RS Red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라식이 아닌 라섹 수술로 답을 찾다

수술을 위한 정밀 검사 결과, 그는 스타킹에 나올 만큼 놀라운 두께의 각막 소유자였다. 상위 1%에 들 만큼! 라식 수술보다는 라섹 수술이 좋다는 진단이 나왔다. 라식 수술은 각막에 얇은 절편을 생성한 후 레이저를 각막에 쏘아 시력을 교정한 후 다시 절편을 덮는 방식. 반면 라섹 수술은 라식 수술과 달리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얇은 각막 상피만을 선택적으로 벗겨낸 후 레이저를 이용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이다. 각막 두께에 큰 제약 없이 수술이 가능하고 충격에 보다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 방법은 각막의 두께나 근시 정도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진다. 이보영 사우는 고도 난시와 스포츠에 대한 향후 안전을 고려해 라섹 수술이 적합하다고 판단. 최고 장비인 스카우트 라섹에 아마리스 1050RS Red를 더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었다.



Co-Marketing 부산 서면 아이시티 안과 (051-817-0006)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한 통증 없는 수술, 아이시티 안과가 화승과 함께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안과, 부산 서면 아이시티 안과입니다. www.eyecity.co.kr

매일 벗는 안경을 마지막 벗던 날

함께 동행한 이보영 사우의 아내도 덩달아 긴장한 눈치. 검안 후 상담에서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준 김규식 원장은 편안한 인상은 물론 몸에 밴 친절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수술해준다. 수술 시간은 불과 10분이지만 검안과 회복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통증이 약간 동반될 주말 3일 이후 그는 서서히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더불어 자전거와 수영, 마라톤의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 화승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잘 보여서 더욱 편찮아진 그의 내일을 당당하게 응원한다. 🇰🇷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라섹 수술. 이제 축구는 기본,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런닝맨이 될 테다!

고마워, 짝지야

올해도 어김없이 특별했다. 지난 8월 경기 영어마을 양평캠핑장에서 열린 제11회 세계예술치료협회 하계캠핑(WATA캠핑)에 39명의 2014년 화승그룹 신입사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장애 아동과 짝지가 되어 1박 2일간 함께 울고 웃으며 '특별한' 친구가 된 이들. 화승엑스윌 변성화·유민준 사원 그리고 화승T&C 홍성열 사원은 이들간의 와타캠핑을 통해 변화된 자신들을 발견했다며 그 고마운 마음을 짝지 친구들에게 편지로 전달했다.



고마워, 와타캠핑

잘생긴 내 짝지 우진이에게

우진아, 잘 지내지? 성화 형이랑 민준이 형이야. 봉사활동 때문에 간 캠핑었는데, 그냥 단순한 봉사가 아닌 친구를 사귀고 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네게 편지를 쓴다!
사실 형들은 우진이를 만난 이번 캠핑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른 채 올라왔어. 우린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인데, 캠핑에 참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황금 같은 주말이 날아가는 생각때문에 처음엔 짜증이 나기도 했거든. 물론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캠핑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나 피곤한 몸 이끌고 양평행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해도 우진이처럼 멋진 아이를 만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던 말이야.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장애인의 이야기를 참 많이 접했지만 직접 함께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었나봐. 휠체어를 타고 오던 너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땐 살짝 겁이 났었어. 어떻게 하면 네가 덜 불편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런 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금세 알게 됐어. 어색해 하는 형들을 오히려 더 반겨주고 챙겨주는 우진이 덕분에

우진아, 형들과 약속했던 너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나중에 멋진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형들이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캠핑에서 있었던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네가 좋아했던 물놀이가 기억에 많이 남는단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물총과 물대포 속에서도 방긋 웃으며 휠체어에 날개를 단 듯 뽀뽀 달리는 네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
우진아, 캠핑을 마치며 형들과 약속했던 너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나중에 멋진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학과 교수님께 인정받은 새로운 너의 재능, 사진촬영 기술을 잘 연마해서 김우진만의 특별한 작품을 찍을 수 있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으면 해. 운동 열심히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혼자서 다 해내기로 약속한 거 잊지 마! 김우진 파이팅!
우진이의 미소친구, 성화형 그리고 민준이 형이



시크한 우리 태원에게

태원아, 안녕? 성열이 형이야. 설마 형을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1박 2일 동안 시크의 결정체를 보여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쓴다.

헤어질 때는 무덤덤하게 어머니께 돌아가 버려서 엄청 서운했었는데, 집에서 나랑 또 자고 싶다고 칭얼거렸다면서? 넌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매력에 빠진 거야. 후후.

태원아, 사실 형도 매력덩어리 태원이 많이 보고 싶어.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대학생 누나, 형들과 함께한 사진 프로그램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좋아한다며 1시간 동안 땀방에 돌아다녔던 것 기억나니? 너의 웃는 모습에 나도 정말 신나긴 했는데, 형이 연식이 좀 있다 보니 힘들긴 힘들더라... 그래도 덕분에 예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태원이 생각이 참 많이 난단다.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밤의 공연도 잊진 않았지? 마임이며, 미술이며, 댄스며 좀처럼 보기 힘든 공연이라 형도 태원만큼이나 신이 났었어.



너도 불꽃놀이는 무섭고 시끄럽다더니 막상 시작하니깐 넋 놓고 구경하더라? 다음날 틈만 나면 불꽃놀이 동영상을 보여 달라던 널 보며 시크한 척하던 옛날 여자친구가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었어.

내가 장난을 좋아해 농담도 많이 건넸지만 순수한 너의 눈과 귀로 세상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참 많은 걸 배우게 됐어. 태원아도 이번 와타캠프에 참여하면서 다채롭고 신나는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다음에도 태원아와 꼭 함께하고 싶구나. 그럼 태원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항상 건강해야 해! 안녕! 🇰🇷

태원이의 소중한 친구, 성열이 형이



이번 와타캠프는 순수한 너의 눈과 귀로 세상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꿈을 잡고 조동욱 이사장

나는 (I'm) 카페, 나는 (Flying) 카페

향기로운 커피향과 쿠키 굽는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 여느 카페와 다를 바 없는 이곳은 지적 장애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있는 '나는 카페'이다. 내가 만든 커피로 꿈을 향해 날고 싶다는 소망을 담은 '나는 카페'의 조동욱 이사장을 만났다.



커피가 맛있는 '나는 카페'

중증발달장애인의 퇴행을 막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돕는 '꿈을 잡고(Job Go) 프로젝트'의 일환인 나는 카페. 2012년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개업한 9호점까지, 총 31명의 장애 청년들이 능숙하게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디딤돌 역할을 자처한 꿈을 잡고의 조동욱 이사장은 처음 우려했던 바와 달리 장애 청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우리 사회가 참 살 만하다고 이야기했다. "처음 1호점을 열 때는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든 커피를 사람들이 맛있게 마셔줄까? 과연 이것으로 수익을 내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하는 것이었죠. 물론 두 번째 고민은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장애 청년들이 만든 커피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커피의 본질인 '맛'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터. 인도네시아 만델링 원두를 사용했다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자 고소한 풍미와 씩씩한 뒷맛이 은은하게 입안에 퍼졌다. 직접 만든 양갱과 쿠키도 너무 달지 않은 것이 커피와 좋은 하모니를 이루었다. 새누리장애부모연대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고, 그 뒤로 1년 동안의 교육기간을 거친 장애 청년들은 꾸준히 연습하고 반복한 덕분에 최상의 커피맛을 낼 수 있었다. 특히 안산점의 이동환 바리스타는 일반인과의도 실력을 겨룰 만큼 모든 레시피를 다 섭렵했다. 모두에게 인정받아 이제는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할 정도라고. 그를 비롯해 교육과정 중 뛰어난 장애 청년들만 선발해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니 그 맛이 단연 최고일 수밖에 없다.





어엿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이기도 한 조 이사장이 나는 카페를 만들기로 결심한 계기는 장애 청년의 부모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사실 장애 청년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해요.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언젠가 혼자 남겨질 자식을 걱정하며 살아가요. 만약 장애 청년들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니만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 청년들의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졌다는 게 나는 카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특히 올해 4월 나는 카페 성남점을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김성은 바리스타는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카페를 오픈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꿈이 있어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며 씩웃 웃는 그녀. 커피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일을 즐길 줄 아는 장애 청년들이 있기에 나는 카페의 행복지수는 오늘도 100%다.



나는 카페의 가장 큰 성과는 장애 청년들의 밝아진 표정이다.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이들을 위해

“나는 카페의 운영이 안정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교육뿐만 아니라 원두를 유통하고 로스팅을 하는 등 카페를 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도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조 이사장의 바람은 장애 청년들이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하루빨리 자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후원이 아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되면 장애 청년은 물론 취약 계층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녹아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는 나는 카페뿐만 아니라, 수년 내에는 싱글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쉼터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가운 시선으로 맘 돌 곳이 없었던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서로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 명을 한 조로 구성해 한 명은 보육을, 두 명은 경제적인 면을 책임지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려놓았다. 연약하고 작은 아기새가 거친 풍파를 견뎌내고 더 넓은 세상으로 훨훨 날 수 있도록 날갯짓을 가르치는 어미새처럼, 조동욱 이사장은 오늘도 그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며 행복한 내일을 꿈꾸고 있다. 🇰🇷

눈에 보이는 후원이 아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 자동차 부품 사업계의 아이콘 화승앨러배마(HSAA), 크라이슬러 최고의 화학공급업체 선정



지난 6월 24일 화승앨러배마(HSAA)가 미국 자동차 빅3로 꼽히는 세계적인 자동차사 크라이슬러로부터 명예로운 상을 수상했다. 화학공급업체 부문 최고의 화학공급업체로 최종 선정, 화승그룹 현지호 총괄부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미국 앨라배마주 엔터프라이즈시에 위치한 HSAA는 2003년 설립된 공장으로 브레이크 호스, 에어컨 호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크라이슬러, 현대·기아차, GM, 미쓰비시 등의 자동차사와 거래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지금은 와이어 그레스 지역에서 산업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월 제2공장이 증설되면서 HSAA에는 현재 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3공장의 건설도 이미 시작되었다. 엔터프라이즈시 보스웰 시장은 HSAA가 2003년부터 오늘날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경이로움을 전했다. 김형진 법인은 “HSAA가 북미 주공급업체로서 레벨업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공로와 지자체의 도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HSAA recognized the recipient of the Chrysler Group's Supplier of the Year Award. Chrysler is one of the Big Three automotive manufactureres in the U.S.A. General Vice Chairman, Mr.Hyun, of Hwaseung R&A was awarded of Chrysler's Chemical Supplier of the Year Award. HSAA is located in Enterprise Alabama, was founded in 2003, makes break hose, aircon hoses for a variety of auto manufacturers, including Chrysler, Hyundai, Kia, General Motors and Mitsubishi. Back in Feburary, HSAA extended which includes a 2nd plant and currently over 400 employees are working at HSAA, and 3rd plant is under construction. Also, Enterprise Mayor Kenneth Boswell was quoted saying "It has been phenomenal. You go back and look has what has transpired from 2003 to now, it's amazing." President Hyeongjin Harry Kim also said "HSAA has advanced to the level of 'Main Supplier' in North America, and we all should be proud of this accomplishment and 'Thanked' all employees for this contribution." Addition to that, President Kim said the support from Enterprise and surrounding communities has helped grow the Plant. 🇺🇸🇺🇸



화승비나 및 이계영 대표이사 베트남 상공부 장관상 수상



지난 7월 16일 베트남 쉐라톤 호텔 3층에서 열린 Lefaso (Vietnam Leather & Footwear Association) 및 베트남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신발·가방 기업 및 근로자 명예 시상식에서 화승비나 및 이계영 대표이사가 영예의 상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0년에 두 번째로, 화승비나가 베트남 신발 제조 분야의 최고임을 다시 한 번 알렸다. 화승비나 이계영 대표이사는 노사가 하나되어 이뤄낸 쾌거의 결과로 수상의 영광을 화승비나 가족들에게 돌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내 여러 신발 제조업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화승비나의 수상을 축하했다. 🇻🇳🇻🇳



화승T&C SUNFAD·COATWELL 브랜드 런칭



화승T&C가 기존의 신발 접착제 및 자동차용 코팅제에 새로운 브랜드명을 도입시켰다. 제품 특성에 잘 부합하고, 글로벌 이미지 부각을 목표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결과 신발용 접착제는 'SUNFAD', 자동차용 코팅제는 'COATWELL'이 선정됐다. SUNFAD는 SUN Flower+ADhesive의 합성어로서 해바라기처럼 고객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으며, 또 SUN+FAD로서, 강력하고 유일한 제품으로 유행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COATWELL은 COAT+WELL의 합성어로 제대로 된 코팅제를 연구·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새 브랜드명으로 고객과 함께할 화승T&C의 저돌적 시장 확대를 기대한다. 🇻🇳🇻🇳

NEWS



화승그룹

전국에 소개된 꿈틀이들의 이야기-

화승 꿈틀 프로젝트, KBS <사랑의 가족> 방영

화승그룹 직접사회공헌 프로젝트인 '화승 꿈틀 프로젝트 : 꿈은 틀림 없이 이루어 진다'가 지난 8월 11일, 국내 최초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인 KBS <사랑의 가족>에 방영되었다. 방송에는 신애재활원 장애인 7명과 화승그룹 임직원 봉사자 7명이 1:1로 짝을 이루어 바리스타, 요리, 가구 DIY를 함께 배우는 프로젝트 일과를 담은 내용이 약 12분간 소개되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친구들, 이들과 함께하는 화승그룹 봉사자들의 즐겁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화기애애(和氣愛愛) 캠페인-

회장님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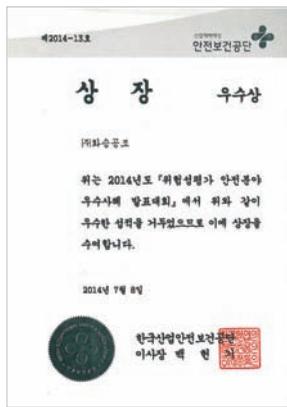


화승기(氣)살리는 화기애애(和氣愛愛)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화기애애 캠페인은 화승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화승그룹 직원 가족의 기념일이나 특별한 사연을 그룹 회장실에 응모하면 현승훈 회장이 직접 최종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직원복지의 일환인 화기애애 캠페인의 주인공들에게는 현승훈 회장이 직접 준비한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여행경비, 그리고 특별 휴가 3일이 주어지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화승공조

충남 대표 안전보건활동 기업 선정-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화승공조는 지난 7월 8일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발표대회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획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범이 되는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화승공조는 충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번 위험성평가 인정 획득으로 산재보험료 20% 감면(3년간,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혜택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람 중심의 밝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화승네트웍스

웃음 넘치는 생일잔치, 한바탕 단합으로- 창립 8주년 기념행사 성료

지난 6월 17일 화요일, 화승네트웍스 서울사무소 임직원 일동은 창립 8주년을 기념해 인근 청계산을 등반하였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강삼남 부사장을 필두로 서로 격려하며 임직원 전원 산행을 완료한

NEWS



후 열띤 응원과 함께한 족구 경기로 화합의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인근 식당에서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로 화승네트웍스의 8주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화승인더스트리

새 식구들과 하나 되는 자리- 2014 상반기 공채사원 단합등반 실시



지난 6월 12일 화승인더스트리의 2014년 상반기 공채사원들이 충남 홍성 용봉산 단합등반을 실시하였다. 경영관리 이봉호 전무를 비롯해 각 부서 팀장들의 인솔 아래 진행된 산행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등반을 완료하였다. 산행을 마친 후 1,500년의 역사가 깃든 사찰인 수덕사 방문으로 마무리된 이날 행사는 화승인더스트리의 친구가 조화되고, 서로 더 가까워진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그룹 임원 인사

신임
HSD 김광현 상무이사(업무 총괄)
HS VINA 김진규 이사부장(공무)

승진
(주)화승공조 이순 이사부장
(주)화승공조 관리 부장
→ (주)화승공조 관리담당 이사부장
(주)화승T&C 관리담당 겸직

전보 및 겸직
백대현 각자대표이사 사장
(주)화승R&A 각자대표이사 사장
(화승공조, HST, HSB, HSAA, HSI AUTO, HSTR 겸직)
→ (주)화승R&A 각자대표이사 사장
(HST, HSB, HSAA, HSI AUTO, HSTR 겸직)

이정두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T&C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R&A 생산본부장/기술연구소장
→ (주)화승T&C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공조 대표이사, (주)화승R&A 생산본부장/기술연구소장 겸직)

(주)화승T&C 구철홍 이사부장
관리 담당 → 회장실
(주)화승인더스트리 서정욱 이사부장
HSP PV사업 담당
→ HSP PV 사업 담당
(주)화승인더스트리 PV 사업/ 통기 영업 담당

(주)화승인더스트리 김영중 이사부장
기술연구/개발 담당
→ 기술연구/개발 담당, OPP/PET 영업 담당

COMMUNICATOR

화승그룹총괄 홍보팀 김병호 과장
홍보팀 박치선 대리, 심일욱 사원
(주)화승R&A 황지희 (기획팀 사원)
(주)화승소재 임상호 (기획원가팀 대리)
(주)화승공조 조인희 (경영관리팀 대리)
(주)화승T&C 박재성 (관리팀 대리)
(주)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대리)
(주)화승엑스월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사원)
(주)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계장)
미국 HSAA 박강찬 과장
베트남 화승비나 최영훈 부장
중국 HSD 김명호 대리
중국 HST 김성우 과장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나 고무적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고무적인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의붓오빠와는 늘 서먹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도움을 주는 고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잘 안 풀리는 세상사 속에 해답지가 되어주는 우리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김민영

심한 우울증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친구가 <탈무드> 책을 선물해줬는데 그 책에서 본 문구가 제 인생을 고무적으로 바꿔놨어요. “신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정호근

화물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앞이 까마득해지고 있는 순간, 피해 차주이던 노신사께서 용서해주시며 어께까지 두드려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항해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었지만 그때 그 노신사의 배려는 지금 생각해도 참 고무적입니다.

•유재범

스스로에게 간절함의 눈빛을 느꼈을 때, 누구의 의지도 아닌 나의 의지, 나의 간절함이 고귀한 빛으로 가슴에 다가왔을 때. (p.42에서 장지오 님이 소개해주신 추억의 공간을 공유해보세요.)

•장지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딸은 학업 때문에 멀리 떠나있고, 남편과 다뤄 꿀꿀한 마음 가득 품고 누워있는데 제 기분을 알아차렸는지 반려견이 옆으로 와선 쓱쓱 핥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언제나 위로와 사랑을 주는 고무적인 반려견이 있어 너무 행복해요.

•정아진

제 사위는 외국인입니다. 한국말이라고는 인사말 정도 겨우 하는 터라 그와의 의사소

통을 위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사위와 딸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차리고 어설픈 영어로 음식 하나하나 설명하며 맛있게 먹으셨더니, 사위가 놀란 눈으로 고마워하며 음식도 영어도 폭풍칭찬을 하더군요. 사위 사랑은 역시 장모인가 봐요!

•김영자

푹푹했던 여고생 시절, 수학 선생님을 짝사랑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죽어라 공부해 결국 수학시험 100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눈에 띄어보려는 의지로 노력해 성과를 이뤘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무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유진

인젠가부터 무기력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직장에서 “네가 없으면 일이 안돼”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런 칭찬은 격려와 자극이 되더군요.

•오수민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일을 병행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절약한 끝에 작년 작은 전셋집을 마련했던 그 순간이 가장 고무적이었습니다. 텅 빈 방안에 하나둘씩 들어나는 세간 살림들을 보며 처음 집을 마련한 그 날의 몽클함에 행복이 더해졌습니다.

•송지수

귀농을 결심하고 3년 전부터 시험 삼아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처참한 수확량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 삼아 애지중지 키운 결과, 올해는 고추가 정말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이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가요!

•송재하

■ 2014년 화승그룹 사보 <DBT> 가을호 독자엽서 당첨자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이현정(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윤인수(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룡사길), 왕찬우(부산 금정구 수림로),

유광열(대전시 중구 서문로), 송두월(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
김민영(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정호근(전남 순천시 저전동), 유재범(서울시 관악구 행운1길), 장지오(서울시 중랑구 면목2동), 정아진(전남 여주시 여서로 대치1길), 송재하(대구시 수성구 공경로), 김영자(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이유진(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오수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송지수(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47길)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이 사은품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1,500여 개 가맹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4년 9월 30일까지 051-850-703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화승이니까 괜찮아요

포장재 플라스틱 필름의 B2B 마케터, 정기명. 작년에 입사한 따끈한 신입인 그에게 화승은 대장간과도 같은 곳이다. 배울 것 많고, 배우고 싶은 선배들 많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다 보면 어느새 보람과 성취로 스스로 숨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화승. 담금질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강철처럼 화승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그래서 더 괜찮은 청년 정기명이다. 결혼과 세계여행이라는 두 개의 버킷리스트를 가진 그는 더 큰 화승을 생각한다. '화승'이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혼자가 아닌 서로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제 갓 담금질이 시작된 이 친구에게서 괜찮은 미래를 본다.



Do Better
Turn around 2014
Tomorrow

2014 Autumn vol.36 2014년 9월 15일 발행

발행인 현승훈
글·사진 DBT 사람들
기획·진행 화승그룹 회장실 박동호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박치선, 심일욱
하이미디어 P&I 박지현, 이영진, 이진우, 한수빈
(주)하이미디어 P&I(02-795-3364)
편집·출판 백선영, 장윤희, 진명숙, 이예슬
디자인 (주)유닉하우스(02-511-7277)
사 진 예술리
캘리그래피 & 일러스트 서울문화예술전문학교 뷰티예술학부
헤어메이크업 (지도교수:손승연, 메이크업: 박선희, 헤어: 조무현)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인 쇄 (주)키움프린팅

펴낸 곳 발행처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E-mail iwsim9025@hsrna.com

화승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가구공방을 다니며
가구를 만드는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
요리도, 커피도, '꿈틀 프로젝트'를 통해
나를 나눔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곳.
텃밭을 일구어 수확한 푸른 채소를 나눠 먹고,
그 채소를 회사 식당에 팔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화승이랑'으로 나눔과 도움의 보람을 주는 곳.
장애 비장애 형제들과 함께 놀며 그 안에서
더 큰 나를 발견하게 하는 곳.
교육도, 문화도 함께라는 가치를
더 크고, 더 멀리 나누는 곳.
희망 가득한 이곳에
내 꿈의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화승에 다닙니다.



화승그룹

(국내) 화승R&A 화승소재 화승T&C 화승공조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엑스월 화승네트웍스

(해외) 중국 - 화승기차배전(태양)유한공사(HST), 북경화승R&A기차배전유한공사(HSB), 화승특종고무(태양)유한공사(HSF), 정전제화대련유한공사(HSD), 청도장천제화유한공사(HSQ), 화승태양소재(태양)유한공사(HSP), 화승상해국제무역유한공사(HSS) 미국 - 화승알라배미(HSAA), 화승네트웍스아메리카(HSNA) 인도 - 화승인도(HSI AUTO), 화승인도네트웍스(HSNI), 화승소재인도(HSM) 말레이시아 - 화승말레이시아(HSLS) 터키 - 화승터키(HSTR) 베트남 - 화승비나 (HS VINA), 화승똥따우(HVT), 화승베트남케미컬(HVC), 화승베트남네트웍스(HSVN)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한 백혈병 소아암 환자 지원 사업
- 세계예술치료협회와 소외계층 및 장애아동 예술치료 캠프지원
-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 젊은 연주가 모임인 아자무스 오페라단 정기후원